



기념사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전주 문화의집이 벌써 출범 20년을 맞이했습니다. 문화의집은 1996년 문화복지정책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설립되기 시작했고, 전주는 2000년 진북문화의집 개관을 시작으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 2001년에 삼천문화의집, 2002년에 우아·효자 문화의집, 2003년에 인후문화의집이 차례로 개관을 하면서 주민 곁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진북문화의집 개관 20주년에 맞추어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조출한 축하의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루게 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 문화의집 20년’이라는 의미 있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문화의집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땀 흘린 모든 분의 노력이 담긴 책입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봐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엮으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문화의집은 시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화공간이자 어찌 보면 가장 ‘만만한’ 문화 향유의 터전입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문화지수라는 것을 매기는데 전주 문화의집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전주는 수년간 ‘지역문화 종합지수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전국문화의집 축제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문화비전을 선포하면서“전주를 생활문화의 중심 도시, 전국의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문화 의식과 향유 수준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이 전주의 큰 자부심입니다.

지난해부터는 문화의집이 한 단계 도약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문화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생활문화’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문화를 뜻합니다. 문화는 저 멀리 있는 고상한 세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스며있고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문화를 뺀다면 남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 속에는 그간 문화의집에서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다양한 활동들과 주민 생활문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일종의 ‘시민 생활문화사’입니다.

우아문화의집 연극과 공연, 삼천문화의집 마을축제와 생활문화장터, 효자문화의집 전래놀이와 국악배우기, 진북문화의집 음식과 인문이야기, 인후문화의집 지역 스토리 찾기 등 주민들과 함께 해 온 스무 해 남짓의 성실한 발자국들... 가만 가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앞으로 생활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더 다양한 활동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책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문화의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문화의집과 함께 해온 주민 여러분께 작지만 기쁜 선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발간사

전주문화의집협회장 한천수



전주 문화의집이 개관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주 문화의집은 생활 속 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주 시민의 기초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전주 문화의집'이라는 전국적인 문화 공간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주 문화의집은 2000년 진북문화의집을 시작으로 삼천, 우아, 효자, 아중, 인후문화의집이 순차적으로 개관하였고, 이중 아중문화의집은 2005년에 전주시 평생학습관으로 기능 전환하여 2020년까지 5개의 문화의집이 운영되었습니다. 전주 5개 문화의집은 다시 2020년 9월 문화의집 관련 조례가 생활문화센터 관련 조례로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여 운영됩니다.

생활문화센터로 전환 운영된다 해서 기존 문화의집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문화의집 성과는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여기에 정부의 생활문화 정책과 연계한 주민 주도성과 지역성을 강화하여, 전주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전환의 주요 취지입니다.

덧붙이자면, 전주 5개 문화의집 모두 2014년~2015년 사이 정부로부터 생활문화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었기에 상기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본 『전주 문화의집 20년』 책자는 본권과 각권(5개 문화의집) 등 총 6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권에는 전주시 문화의집 관련 전반적인 활동 내용과 문화시설의 역할에 대한 논의, 그리고 2005년 기능 전환한 아중문화의집 내용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아중문화의집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신 오충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각권은 5개 문화의집 별 내용으로, 문화의집 소개와 주요 활동 기록 그리고 분야별 주요 활동과 전문 작가의 시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시민 인터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문화의집 운영진이 직접 자료를 찾고 분석한 내용인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고할 자료가 사라지거나 유실된 자료가 많아, 남아있는 자료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글을 쓰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원고를 작성해주신 문화의집 운영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주 문화의집 20년』은 지난 20여 년간의 방대한 문화의집 활동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책자입니다. 하지만 문화의집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에 부족하나마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책자 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문화의집 활동의 성찰적인 계승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지역 중심 시민중심의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생활문화센터가 전주 시민문화의 기초이자 토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사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얼어붙었던 긴 겨울이 지나고, 들판의 봄꽃처럼 화사한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때에, 지나온 나날을 되짚고 내일의 비전을 설계하기 위한 「전주 문화의집 20년」 책자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시민의 곁에 함께해온 전주 문화의집은, 문화적 수요의 팽창에 발맞추어 시민 문화시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소통의 중심이자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지금의 ‘관광거점 도시 전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삼천, 우아, 인후, 진북, 효자에 자리한 5개의 문화의 집은 단순한 문화 향유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과 주민의 재능 발굴 및 사회봉사의 중심으로 성장하여왔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란, 단순히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생활, 주민의 삶이 녹아드는 것이란 점에서, 이러한 생활 속의 문화시설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큼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금의 「전주 문화의집」이 성장해오기까지 친절과 사명으로 헌신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전주 문화의집」을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해 오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전주시에서는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생활문화’라는 보다 실천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 앞에, 시민편익 프로그램 발굴과 소통의 노력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20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전주 생활문화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주시의회도 적극 지지하며 도울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로의 발전과 비상(飛上)을 응원합니다.

축사

한국문화의집협회회장/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협력위원장
차재근



문화(영어/culture)의 어원은 경작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Cult에서 유래 합니다.

문화란 매우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총체적인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때로는, 철학을 부여할 문명적 사건과 기록들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과 현상 가장 가까이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지역이 가진 터무니와 사람무늬를 담은 장소성을 가집니다. 동시에 지역 문화다양성을 톺아 사회성을 지닙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공동체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성의 값진 열매를 맺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할 시민력으로 발현하게 합니다.

이제 문화의집은 탈 근대적 삶을 추구하는 전환의 중심 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 그 간의 문화의집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맨 앞자리를 전주 지역의 문화의집들이 열어 갑니다.

성찰과 모색의 자료들이 모아질 이 소중한 용기와 작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의
문화의집과 협회가 지지하며, 뜻을 이어가게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문화의집	015
1. 문화의집 시작	016
2. 전주 문화의집	024
3.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029
4. 전주 문화의집 활동	036
5. 생활문화 위치 찾기	040
II 전주 문화의집 20년	049
1. 연보	050
2. 주요 기록	056
3. 전주 문화의집 공간소개	088
III 지역과 문화 그리고 문화시설의 역할	099
IV 부록 - 아중문화의집	153





전주 마천이전 20편



문화의집

1. 문화의집 시작

문화의집은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로 설계되었다.

여기에서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한정하 이유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자치의 주체인 ‘민(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권 문화시설 확대 일환으로 시작한 ‘문화의집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시행 전부터 주민자치와 더불어 문화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하게 간주된 단어가 바로 ‘지역’과 ‘주민’으로 그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했다.

초기 문화의집 기능과 역할로 당시 정책적 문화이념이었던 ‘복지로의 문화’에 입각하여, 문화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책 추진의 입장에서 문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적 측면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문화 향유권 확대는 곧 문화 복지의 이행과 동일시되었다. 즉 문화의집은 문화 복지를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활권 안에서 실행하는 공간이자 시설로 처음 설계되었다.

문화의집 조성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환경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보다 분명한 건 법령 제정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즉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 법령의 뒷받침을 받는 시설이 아닌 정부 정책 운영의 일환으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어 성과를 내야하는 사업이 문화의집 조성의 시발점이었다. 이와 같은 지시와 성과 측면에서 아래 담당 공무원이 밝힌 것처럼, 전국 곳곳에 산재한 체육시설과 같이 마을 단위 생활권에 문화시설 조성을 구상하였고, 이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문화의집 건립이었다.

아래 글은 문화국가를 추구하던 문화체육부가 1996년 11월 1일 발행한 『문화도시 문화복지』 창간호에 기획 특집으로 실린 문화의집 내용 중 조성 취지에 관한 글 전문이다.

마을 단위 문화복지 시설

—‘문화의 집’ 기획 취지—

한국형 ‘문화의집’은 문화복지와 함께 태어났다. 지난 2월 문화복지를 위한 기본구상을 기획하면서 마을 단위로 주민들을 위한 이상적인 문화공간이 어떤 것일까에 대하여 고심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문화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중추형 문화시설은 거의 대도시에 몰려 있어 각 지역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문화를 접촉하거나 참여할 여건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체육부문에서는 동네 체육시설이 전국에 2,500여개소나 산재해 있다. 문화부문에서도 동네 체육시설과 같은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한국형 ‘문화의집’을 구상해 보았다.

여기서 마을 단위라는 것은 반드시 농어촌의 부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시에서는 어디에나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문화 불모지대이다. 많은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 하나 정도가 구비되어 있는 외에 삭막할 정도로 문화적 시설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어른들은 물론 감수성이 강한 아이들까지도 문화적 체험을 해볼만한 기회가 없다. 그러다보니 만화 가게나 비디오 가게와 같은 불건전한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기업체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문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직원들이 휴식시간이나 일과 후에 건전한 문화를 접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 술집이나 노래방과 같은 향락적 문화에 익숙하게 된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물론 시간과 돈을 들여 대도시의 훌륭한 공연장이나 미술관과 같은 문화공간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생활권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면 더 이상적일 것이다. 한국형 ‘문화의집’이 구상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국민들이 문화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주거 영역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문화의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마치 동네 체육시설과 같이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할 것이다.

문화복지의 기본구상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와 체육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의집'은 거주생활권에 가장 접근된 소형 문화복합공간의 모델로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문화의집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문화상 앙드레 말로에서 연유되었지만 한국형 '문화의집'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문화체육부는 이러한 '문화의집'을 정부가 적극 선도하여 각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와 기업체가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체는 직원들의 복지나 사회봉사 차원에서 '문화의집'을 설치할 것으로 본다.

김순규(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조성 배경에서 밝혔듯이 ‘문화 복지’라는 단어는 문화의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 시설로 문화의집이 초기부터 활동 방향이 설정된 것이다.

문화의집을 한참 구상하고 있던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중요 관심사와 이슈는 ‘선진국으로 도약’이었다. 당시 선진국의 기준은 ‘복지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화 영역에서도 복지는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개념은 선택이 아닌 보편적 성향을 갖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운용되기가 쉽다. 1990년대 중반 문화를 복지의 관점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방법이 바로 ‘수혜 또는 혜택’이라는 선택적 복지로 인식되었다.

여기에 문화 교화적 인식까지 더해져 문화의집 운영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정책당국에서는 국민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나 교육지수가 높은 계층이 누리는 문화를 일반 대중들에게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문화의집 설립의 주요 취지이기도 하였다.

아래 글 역시 『문화도시 문화복지』 창간호에 실린 것으로, 문화의집 설립 초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당시 문화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과 앞으로 문화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국민 대중에게 어떠한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선진국가 국민에 적합한 것인지 또한 문화 분야의 민주화 과정에서 문화의집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의 눈높이와는 조금 다른 위치의 문화 체계도 일면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 기고문에서는 문화의집 운영 방향을 제안하면서 단순히 고급문화의 대중 확산이나 예술 장르적 활동에 머물지 말고, 이해와 소통 그리고 다양성에 바탕을 둔 사회문화 시설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의 집’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우리에게 상호간의 이해에 바탕을 둔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면, ‘문화의집’의 각종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집’ 활동은 주민의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의집’이 지향하는 목표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사회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복지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자 하며, 고급문화의 확산을 통해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 목표는 급격히 산업사회를 이루고 탈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합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겪은 사회변동은 서구의 그것보다 훨씬 격심하였으며, 그 부작용 또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층간·지역간·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문제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향후 보다 분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호간의 이해에 바탕을 둔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면, '문화의집'의 각종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집' 활동은 주민의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정신적 빈곤의 이유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계층·거주지·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요자 중심으로 파악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문화의집'이 지향하는 문화의 개념을 문화예술을 넘어서 사회문화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외국 '문화의집'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인 문화예술 관련기관·대학·언론기관·백화점·구민회관·문화원·지역단체 등과의 관계 및 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건립될 '문화의집'은 기존의 사회문화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상업성을 표방하는 기관과는 협력해서는 안 된다. 상업성은 문화복지와 사회문화 형성에 부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기관과의 협조는 시설 이용의 편의성, 프로그램의 지속성이란 장점을 갖지만, 그 핵심은 운영주체의 다양화, 다시 말하면 '모두로부터의 문화 지향성'에 있다.

문화복지의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전국에 '문화의집'을 2001년까지 1백 개소, 2011년까지 350개소 이상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다른 나라들의 예에 비추어볼 때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전적으로 '문화의집' 설립 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보다 먼저 ‘문화의집’을 설립하고 운영한 외국의 사례는 좋은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일찍이 ‘문화의집’을 설립했던 다른 나라들도 하나같이 경제사회적으로 격변의 과정을 겪고 있었을 때 ‘문화의집’을 설립했다는 사실은, 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결국 ‘문화의집’의 목적은 다원적으로 분화되어 가는 사회에 부흥하고, 지방화를 촉진하며, 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통해 전체의 결속을 가져오며, 발전과정에서 지역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문화복지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문화의집’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 환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가 전형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선행된 외국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점은 ‘문화의집’이 단순히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문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우리사회에서 문화가 중심이 되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에 단절된 의사소통을 돕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또 변화하는 사회에 계몽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의집’은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할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갑영(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2. 전주 문화의집

1) 전주 문화의집 개괄

전주 문화의집은 2000년 4월 진북문화의집을 필두로 2001년 3월 삼천문화의집, 2002년 3월 우아문화의집과 효자문화의집, 동년 5월 아중문화의집, 2003년 11월 인후문화의집을 끝으로 총 6개가 개관하였다.

이중 가장 넓은 공간으로 조성된 아중문화의집은 2005년 5월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3년 동안의 문화의집 활동을 마감하였고, 지금의 5개 문화의집으로 재편되었다.

5개 문화의집 모두 개관 당시 1층에 동사무소가 있었고, 2층 또는 2·3층을 문화의집으로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조성비용은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초기 문화의집 공간 구성은 시청각실(영화·음악 감상실, 인터넷 부스), 관람실(공연, 강좌, 전시), 창작실(취미, 공방, 개인 연습), 사랑방(다도, 동아리 모임), 독서실(잡지, 서책) 등 주로 개인위주 활동 또는 기초 문화·예술 교육 공간과 동호회 연습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운영방식은 민간의 전문성을 공공에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계되었는데, 초기를 지나 2기부터 대부분 문화의집은 소속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였다. 직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과 운영사무 담당과 기획사무 담당 등 직급의 명칭 차이(실장과 팀장)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의집이 이와 같은 실무 체계를 초기부터 구성하고 있었다.

사업 영역은 상설프로그램(기초 문화·예술 강좌), 동아리 활동지원, 특성화프로그램(자체 특화사업) 및 기획프로그램(주로 공모사업) 등 4가지로 <전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운영 재원으로는 전주시의 민간위탁 보조금, 사무위탁 법인의 운영 지원금, 회원(상설프로그램과 동아리) 회비, 각종 공모사업 기금 등이 수입예산으로 구성되고,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강사비 등이 지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시 5개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개별 문화의집 별로 다시 운영협의회를 두어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7:00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의집이 오전 9시 이전 출근과 오후 7시 이후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제 운영시간은 조례의 규정보다 훨씬 길다. 휴관은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및 년 1회 5개 문화의집 합동 워크숍 기간 정도이다.

2) 문화의집으로 살아가기

시설노후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개관한 전주 문화의집은 최초 시설장비와 기자재 구비 이후 2015년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이 없었고, 전주시에서는 시설 개선(유지)을 위한 비용으로 년 간 1,000만 원 내외가 세워져 있으나 이를 다시 5군데로 나눠 지원하다 보니 시설의 노후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기호가 유행이나 흐름 및 기술발달 등의 이유로 해마다 변해 가는데,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비용이 없는 문화의집에서는 기존 기자재에 국한된 프로그램이나 여타 준비물 부담이 적은 강좌형 프로그램 및 공간 대관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상설프로그램의 질적인 정체가 개관 이후 계속되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설의 노후화와 상설프로그램의 정체는 문화의집에 대해 낙후된 문화시설로의 이미지가 점점 덧씌워졌고, 문화의집 운영 초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관심과 호응도 또한 점점 멀어지면서 타 문화센터와 별반 차이를 못 주는, 오히려 후발 문화센터에게 밀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시설 노후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단 전주 문화의집들만 느꼈던 것은 아니어서, 2007 미래비전 전주선언에서도 이에 대한 자구적인 해결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한 지붕 여러 가족

시설 노후화와 상설프로그램의 정체는 문화의집 지방정부 이양과 동시에 모두 예측 가능한 문제였으나 전주 문화의집은 개관한지 그래 오래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이후 개관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시설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각각 문화의집 별로 제기되었으나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부재로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10년 이후 전주시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업은 시설 리모델링을 포함한 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주 5개 문화의집에서는 각각 작은도서관 사업에 참여하여 인후문화의집은 2012년, 우아문화의집은 2014년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효자문화의집도 2014년 작은도서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활문화센터와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전주시 의견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삼천문화의집과 진북문화의집에서도 작은도서관 유치를 준비하였으나 효자문화의집의 전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시설 개선 방향을 잡으면서 작은도서관이 있는 문화의집은 현재 인후문화의집과 우아문화의집 2군데로 정리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주시와 전주 문화의집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을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하였는데, 2014년에는 삼천·인후·효자·진북문화의집 4곳이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우아문화의집이 선정되어 5개 문화의집 모두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라는 유사하면서도 목적하는 바가 다른 2~3개의 시설이 한 공간에서 기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같은 건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진북문화의집의 경우는 전주문화원)와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합하면 적게는 3개 시설(기관 포함)에서 많게는 5~6개 시설이 한 지붕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업

전주 문화의집 주요 기능이 기초문화예술교육(상설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및 공간지원(기자재 포함)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전주시에서는 운영할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민간위탁 운영비의 대부분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집 자체의 고유 목적사업(특성화사업)을 수행할 비용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목적사업을 확장시키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아가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는 아예 편성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 5개 문화의집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각종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공모사업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운영인력에게는 업무과중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매년 있는 평가 항목에 기획사업(공모사업) 성과가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3년마다 있는 민간위탁 심사에도 기존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배점되어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업무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다.

이상과 같이 전주 문화의집으로 살아가기 위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종종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는 문화의집에 대한 실용성, 즉 유사한 사업(기초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문화의집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의집 사업 영역 중 하나인 상설프로그램(기초문화예술교육)이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목적과는 다른 프로그램(문화예술교육) 운영으로 인해 고유 설립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문화의 집을 역으로 비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문화의집은 상설프로그램에 별도의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 되는 반면, 주민자치센터는 강좌 당 일정한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의집 회원들로부터 수강료가 비싸다는 민원과 압박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도록 기피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생활문화센터는 참여 민주주의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 또는 정부 시책과 연결시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2001년 ‘지역문화의 해’¹⁾를 기점으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토론회 개최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06년 이광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회기 만료 등이 이유로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발의와 폐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다시 수정 입법과정을 거쳐 2013년 12월 이병석, 도종환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절충해서 위원장의 대안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겨우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최초 발의안에 의하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요 시설로 ‘문화의집’²⁾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2013년 국회를 통과한 법에 의하면 ‘문화의집’의 역할은 삭제되고 대신 ‘생활문화시설’³⁾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이 생활문화시설 조항에 의해 건립된 시설의 명칭이 바로 ‘생활문화센터’가 된다.

1) 추진위는 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2001.03.08. <지역문화의 해 의미와 과제> 중에서 재인용)

2) 제1조(문화의 집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집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1)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

다른 측면에서는 2004년 중앙정부의 24개 지방정부 이양사업에 문화의집이 포함되면서 (사)한국문화의집협회를 필두로 대대적인 저항이 진행되었다.⁴⁾

지방정부로의 이양에 저항하는 것과 동시에 추진된 것이 앞서 언급한 ‘문화의집 활성화’ 조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었고, 이를 통해 문화의집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2011년 이병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가 지역문화진흥의 핵심 동인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전 생활문화 보급’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문화 복지적 측면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2년 도종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생활문화’ 부분이 다시 빠지고, ‘문화의집 활성화’ 내용이 다시 등장하지만 모두 폐기된다.

결국 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절충한 대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되었는데, 최종 법안에는 이병석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되어 ‘생활문화’가 매우 강조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 입법 과정에서 추진주체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의 문화시설(문화의집)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문화시설(기존시설에 신규 생활문화센터를 포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립의 반복 과정이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입법 과정 상 대립적 관계에 있던 추진주체에 있어 이 둘을 절충한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즉 문화의집의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생활문화센터의 역할도 수행해야 되는 새로운 문화시설이 탄생한 것이다.

4) “전국 157개 문화의 집 회원들로 구성된 (사)한국문화의집협회가 오는 8일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주초부터 1인 시위, 전국서명운동, 문화의 집 폐쇄 등 강경투쟁을 펼칠 예정” 뉴스스, <초점>전국 157개 ‘문화의 집’ 허물어지나, 2006년 11월 6일자 기사 중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의집 활동이 활발한 편인 전주에서 벌어진 특징적 사건이었다. 전주 5개 문화의집 모두 운영주체가 각각 다른 민간위탁시설임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하였고, 위와 같이 두 개의 명칭을 병기하면서 두 가지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두 번의 전주 선언

전주 문화의집의 짧은 역사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전국 문화의집 역사와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선도하는 면이 강하다. 그 근거로는 2006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문화의집의 활로를 찾기 위해 2007년 전주에서 제1회 전국 문화의집축제를 개최했고⁵⁾, 한걸음 더 나아가 <2007 문화의집 미래 비전, 전주 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문화의집은 지방이양에 따른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전국 80개 문화의집 500여 명의 참가자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로 불러 모았다. 2007년 1월 26~27일 이틀간 <문화야 사랑해>⁶⁾라는 이름으로 5개 섹션(공연, 전시, 문화의집 한마당, 참여행사, 포럼) 행사가 진행되었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문화의집 미래비전으로 발표하였다.

미래비전 전주선언의 주요 내용은 ‘문화의집은 지난 10년 동안 생활권 안에서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유를 통한 문화 복지 실현의 장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취약한 법과 제도, 시설 노후 및 지방정부로의 이양 정책 등 어려운 현실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공간의 독립화와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며, 문화자치와 문화민주주의 거점 공간으로 미래 문화의 세기를 실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5) 이 축제는 문화의집 활동 10주년을 맞아 2006년에 기획된 것이나 대관 문제로 1년 늦춰져 2007년에 개최되었다.

6) 2000년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영아 사랑해’라는 카피는 이후에도 ‘OOO 사랑해’라는 유사 티저 광고 문구들을 무수히 만들어냈는데, 제1회 전국문화의집축제 명칭도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문화의집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당시 ‘문화의집 활성화’가 포함된 지역문화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광철 국회의원은 개막식 인사에서 중앙정부가 문화의집을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무산으로 인해 이 전망은 실현되지 못했고, 2007년 170곳을 정점으로 문화의집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된다. 한편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문화의집 활동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문화의집 활성화’ 조항이 빠진 대신 ‘생활문화’를 지역문화의 주요 동인으로 강조하고 있어 이에 동조하는 표현들이 문화의집 활동 곳곳에 나타난다.

초기 문화의집 지향점이 ‘생활 속의 문화예술 공간’이었기 때문에 생활문화와 간접적인 연결 지점이 있었지만, 주 기능이 문화예술교육(상설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및 개인 문화 생활 지원에 맞춰져 있어, 참여적·능동적·자율적인 생활문화 활동에서 본다면 문화의 집 활동은 수혜적·수동적·교육적인 활동 측면이 강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전주문화의집협회와 한국문화의집협회에서는 ‘대한민국 생활문화축제’라는 큰 명칭 아래 이원화된 행사를 진행한다. 전자는 <전주, 생활문화시장으로 소풍가다>라는 명칭으로, 후자는 <생활문화를 테이크아웃(Take out)하라>라는 명칭으로 8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운영되었다.

전주문화의집협회 행사는 2013년부터 진행한 ‘뜻밖의 휴가’의 변형된 버전의 행사로, 여기에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발표회가 결합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의집협회 행사는 2007년부터 진행해왔던 ‘전국문화의집축제’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 전주에서 진행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생활문화축제를 기획하면서 학술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전 행사로 <문화가 있는 삶, 전주로 통(通)하다>라는 포럼을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2016 문화의집 미래 비전, 전주선언문>이 작성되었다.

이 선언문은 축제 마지막 날 발표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문화의집은 지난 20년을 되돌아 봤을 때 생활권에서 문화 복지 공간을 넘어 지역문화 생산기지이자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공간으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제 문화적 권리와 문화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의 문화주권 회복과 문화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생활문화를 토대 시민과 함께 함은 물론 전국의 생활문화센터 및 생활문화 공간과 단체와 연대’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2007년 문화의집 미래비전 전주선언이 정부의 지방이양 정책으로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표출된 선언이었던 반면에, 2016년 문화의집 미래비전 전주선언은 지역의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활동으로 문화의집 운영방향을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두 선언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변화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문화의집의 위기감이 반영된 선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3) 생활문화센터 확산

생활문화센터는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는 노태우 정부의 문화부 독립과 생활문화 정책 추진으로부터,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의 문화 복지 확대 정책, 참여정부의 기본권으로의 문화정책 추진, 이명박 정부의 생활권 문화정책 확대 등을 거친 연속선에 위치하며,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 등의 법률적 뒷받침으로 추진되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양혜원(2013)의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운영방안』 연구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를 강조함에 따라 명칭이 생활문화센터로 변경되었다.

위 연구에서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생활문화예술은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으로 강윤주(2012)의 생활예술의 정의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2014년 3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내 정책사업팀에서 주도하여 공모사업의 형태로 추진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양혜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성방향이 설정되었다.

조성방향은 신규 건립이 아닌 기존시설이나 유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형태의 지원으로,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유형 구분을 두었는데, 거점형은 다시 인구 규모에 따라 거점센터와 준거점센터로 분류하였다.

공간구성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분리하였고, 운영방식으로는 참여·체험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존 문화센터의 관람형과 강좌형 프로그램을 지양하였다.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과 주민운영위원회를 추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직영 문화센터의 활성화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조건에서는 지자체 소유이거나 또는 지자체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로 지방비 70%에 국비 30% 매칭펀드로 지원하되, 지방비의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장비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리모델링 비용에 있어서는 국비의 비율이 훨씬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신청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면,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이후 컨설팅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2014년 34곳, 2015년 34곳 등이고, 2019년에는 조성/운영 중인 데가 191곳(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참조)에 이른다. 이는 앞서 문화의집 조성현황 추이와 비교하였을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사업추진으로 말미암아 생활권 문화시설의 중심추가 생활문화센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문화센터의 진전은 전주 문화의집 활동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주 5개 문화의집 모두 2014년과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을 진행하였다. 대외적인 명칭에 대해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 두 명칭을 모두 병기하기로 결정하였다⁷⁾.



7)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사업 진행 시 이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간판을 <생활문화센터>로 바꿀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추진했던 민간위탁 운영자들은(각 문화의집 담당자) 실제 개관이 된 이후에도 간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후 전주시로부터 '지원의 근거가 있는 문화의집과 리모델링 지원으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 두 명칭을 병기해서 쓰도록 하자'고 해서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라는 절충된 명칭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었던 것으로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물론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이 그 예이다.

4. 전주 문화의집 활동

전주 문화의집은 앞서 서술한 살아가기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정책을 다룬 문화시설보다 빠르게 받아들였다. 2014년과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후 기존 문화의집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활문화 활동을 더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생활문화의 법적인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초기 활동 방향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전주 문화의집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또한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강사, 컨설턴트, 각종 자료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거나 설명하고 있어, 개념 정의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강의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 발표자 별로 생활문화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시설에서 추진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도 현실과는 맞지 않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생활문화 정의는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현장 운영진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고 따라서 초기 생활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 혼란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전주 문화의집에서는 각각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여 생활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화된 생활문화 활동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로는 운영 단체의 성격,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의 영향, 마지막으로 이용 주민들의 성별 및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깊다.

1) 진북문화의집 활동

진북문화의집 주요 활동 분야는 ‘동아리 활동지원’, ‘상설프로그램(기초예술교육)’, ‘기획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활동’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지원은 자율적인 모임과 자생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로 3층 공간을 이용한다. 외부 강사와 기획 사업에 결합하여 활동하는 기회가 제공되며 문화를 매개로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로 육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설프로그램은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구성하고 있으며, 분야로는 건강·댄스, 미술·취미, 음악·악기, 인문·어학으로 주로 강의와 실습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프로그램은 일상, 인문, 나눔에 기반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내용으로 일상분야에 소속 동아리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잔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있고, 인문분야에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강좌, 신문 및 영상 제작 등이 있으며, 마지막 나눔 분야로는 소속 동아리와 함께 인근의 사회문화적 약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1~2회 진행하고 있다. 특성화프로그램으로는 음식을 바탕으로 때로는 찾아가 이야기를 모으고, 때로는 진북으로 주민들을 초청하여 음식과 이야기를 주제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삼천문화의집 활동

삼천문화의집은 주요 사업인 상설프로그램(기초예술교육)은 물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각종 기획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문화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으로 내외부 이미지를 깔끔하고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이에 힘입어 이용 인구도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용 인구의 증가는 상설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의 안정화를 정착시켰고, 이후 기획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역과 함께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삼천문화의집은 주민주도의 지역 문화 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공동체성 회복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삼천사람’으로 통칭되는 기획단과 함께 각종 기획 사업은 물론 교육공동체 사업에서 마을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삼천은 주민주도 인력양성 외에도 지역적 특성과 연계하여 ‘막걸리 골목 활성화’와 ‘공예공방 네트워크’ 등 연계사업에도 열심이다.

3) 우아문화의집 활동

전주역 앞에 위치한 우아문화의집은 아파트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재건축이 완료되고 신규 주민이 입주하면 타 문화의집 보다 훨씬 활발한 공간이 될 것이다. 아직은 실재 거주 주민은 적고, 첫마중길 주변에는 유흥업소가 빼곡하게 자리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아문화의집은 문화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하여 기초예술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인큐베이팅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시민 대상 직장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 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의집 공간 안으로 주민들을 불러들이기 보다는 주민을 찾아가 함께하는 문화 활동으로 문화의집 존재감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우아문화의집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역이 한창 재개발 중인데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는, 문화적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이웃 주민들이다. 그래서 작은 축제진, 마을 잔치진 향상 이들을 초청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문화의집 공연과 함께 국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4) 효자문화의집 활동

효자문화의집은 타 문화의집과는 다르게 상설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구별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모두 자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하되 동아리로 활동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운영진의 입장에서 동아리로 불리는 일부 활동은 상설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기초 문화예술 교육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운영하고,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하면 효자문화의집에서 운영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

효자문화의집에는 오래 활동한 회원이 많아 운영진 입장에서는 이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 다양한 기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이용자층 영향을 많이 받아 아동, 학생, 장애인, 주부, 어르신 등 세대별 활동과 세대 간 교류는 물론 지역 자치 단체 대상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다. 기획프로그램의 경우 예술 장르 중심에서 지역문화, 공동체 조직, 사회적 기업 및 문화 공간 네트워크 등으로 활동 영역 확장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

5) 인후문화의집 활동

인후문화의집 상설프로그램(기초 문화예술 교육) 특징은 운영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구성된다. 운영진은 주민들을 모아서 함께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여기서 개강이 결정되면, 해당 전문 강사를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는 형태를 거쳐 개설이 된다. 특히 이 부분은 문화의집 운영 측면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호회 활동의 경우는 상설프로그램 회원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동호회로 활동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호회 스스로가 독립된 주체적 단위로의 활동은 아직 주변 여건이나 조직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운영진의 고민도 함께 들어 있다.

기획프로그램은 주로 인후문화의집 특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마을신문, 육교 감장(감짝 장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지금은 지역 이야기 지도나 꽃장, 회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으로 지역과 연계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5. 생활문화 위치 찾기

1) 사전 속 생활문화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는 ‘생활문화’라는 용어의 기록 상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우리말 최초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 사전』에 ‘생활문화’라는 용어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혹시 ‘생활문화’라는 용어를 『조선말 큰 사전』에서 빠뜨릴 가능성을 두고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한 일제강점기(1920년 이후)에 발행된 신문 속에서 확인하였으나 역시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월 <동아일보> 신간소개 부분에 『생활문화』라는 잡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위 조건에서 ‘생활문화’ 용어가 신문에 등장한 것이 이때가 최초였다. 당시 발행된 잡지를 구하지 못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1946년 10월 20일 경향신문 일요특집 ‘가정(家庭)’이라는 칼럼 속에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쓰여, 일부겠지만 당시 생활문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글쓴이는 복식문화와 연관시켜 생활문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활문화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의 편익과 관계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후 아주 드물게 신문에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표현된 글들 또한 ‘생활문화 수준을 높이’ 또는 ‘김장준비’ 등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앞선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조선말 큰 사전』이 <조선어학회>라는 자생적 단체 차원에서 발간한 사전인 반면 『표준국어대사전』은 한국어 정책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는 국가기구인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수록은 되어있지만 ‘북한어’라는 공간 범위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표준어의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북한에서의 ‘생활문화’ 뜻을 살펴보면 “생활을 소박하고 알뜰하게 문화적·위생적으로 꾸리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알뜰하다’가 ‘아리따다’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뜻풀이하면 ‘깔끔하면서 예쁜 환경 조성’을 의미하고 있어, 북한의 ‘생활문화’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적 지위의 단어로 볼 수 있다.

다른 국어사전으로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대사전』에도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생활’이라는 한정된 기간의 의미를 가진 한자 해석에 ‘문화’를 넣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국어사전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1997년 발행한 『농업용어사전』에서 ‘생활문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의 사전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다. ‘생활문화’를 “일상 생활이 정형화된 하나의 문화적 유형”이라고 뜻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대사전』의 ‘삶을 살아가면서’라는 시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일정한 틀이나 반복 등의 조건(정형화)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와 농업진흥청에서 편찬한 두 사전 모두 ‘생활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생활’이라는 조건에 ‘문화’를 뭉뚱그려 놓은 물리·혼합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사전에서도 생활문화를 독립적이면서 구체화된 개념으로 정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정부 직제 속 생활문화

1990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정책을 담당하던 부서가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부로 대통령령에 의해 독립 재편된다.⁸⁾

문화부는 총무과, 총무실, 문화정책국, 생활문화국, 예술진흥국, 어문출판국으로 구성되고, 생활문화국 아래에는 생활문화과, 지역문화과,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등 4개 과를 두어 정책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1993년 정권교체에 따라 문화부는 다시 문화체육부⁹⁾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생활문화국은 1994년 12월 23일 조직개편과 동시에 약 5년의 활동을 뒤로 한 채 부서가 사라지고, 관련 업무는 축소되거나 타 부서로 이관 된다.

8) <문화부 직제> 시행 1990.1.3., 대통령령 제12895호

9)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

당시 생활문화 정책을 담당한 생활문화과의 소관 업무로는 “1. 국민의 취미·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사항, 2. 공공문화기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시·도 문화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4.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5. 기업체 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도, 6.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및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전문요원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전승·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 및 독립기념관의 지도·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이 있었다.

주무 과의 소관 업무를 통해 1990년 당시 ‘생활문화’의 범위를 살펴보면, ‘취미생활, 여가활동, 문화교육, 청소년 문화예술, 기업문화, 문화단체 및 문화예술인, 민족문화’ 등으로 그 폭이 상당히 넓다. 이 중 ‘취미생활, 여가활동, 문화교육, 기업문화’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이전 정부 문화관련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활문화국 신설과 함께 추진하려 했던 과제였다. 생활문화국 해산과 함께 ‘기업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뒤이은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법과 생활문화

〈문화예술진흥법〉 속 생활문화

‘생활문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법률로 1995년 1월 전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제3조(시책과 권장) ②항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②항의 내용은 제①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에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생활문화를 언급하고 있다.

‘건전’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지만 이는 문화예술진흥시책의 방향성에 관계가 있는 단어로 생활문화를 설명하는 중요 요체로 작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정의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제2조 1항 규정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應用美術)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문화예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9조 ①항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와 동 법 제14조 ①항에 의해 ‘문화강좌 설치’를 통한 문화예술 보급을 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위 조건에 따라 ‘건전생활문화’를 재구성하면, ‘국민들에게(아마추어) 문화예술 교육(강좌)과 (관람 등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방향성을 제거하면, ‘생활문화’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교육과 관람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향유’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속 생활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법률 속 개념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앞서 이 법의 핵심 개념인 ‘지역문화’를 살펴보면, 지역 기반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활문화의 위상을 각각의 정책적 문화 분야와 대등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생활문화는 동 법 제2조 2항에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주체를 ‘지역의 주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이 지역문화 진흥에 있어 지역과 주민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선언적 성격의 법령으로 해석되기가 쉽다. 법이 추구하는 구체성과 명확성, 특히 ‘진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입법 취지에 맞게 보완할 사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는 주체, 목적, 방법, 범위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 주체는 전문인이 아닌 지역의 ‘주민’이 되고, 목적으로는 문화적인 ‘욕구 충족’이 되며, 방법으로는 자발적 일상적인 ‘참여’를 통한, 유무형의 ‘문화적인 활동’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살피게 되면 범위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생활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범위에 대한 실마리는 동 법 ‘제2장 제7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의 활동 지원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범위가 ‘문화예술을 중심에 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은 이 법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위 조건에 맞춰 ‘생활문화’를 다시 설명하면,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일상적인 참여로 문화예술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행위’가 된다.

<문화기본법> 속 생활문화의 의미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된 문화기본법 중 신설된 제11조2 ⑤항 4호에 ‘생활문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조항은 재단법인 형태이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기존의 활동 영역 중 하나를 나열한 것으로 이 조항만으로 생활문화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문화기본법>의 다른 규정을 통해 생활문화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법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이 타 법과는 다르게 정의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 의한 문화의 개념 정의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광의의 문화 개념을 받아들여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제3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로 ‘문화권’¹⁰⁾을 상정하고 있으며, 기본이념¹¹⁾의 원리로 다양성과 자율성 및 창조성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개별 문화 진흥과 관련된 법들의 방향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위 정의를 바탕으로 <문화기본법> 속 생활문화의 의미를 찾는다면, 주체는 일반 국민이 되고, 내용은 문화 표현과 활동이 되며, 방향은 다양성과 자율성과 창조성의 실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타 법,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 규정인 ‘문화예술(예술장르)과 관련한 활동’의 범위를 훨씬 넘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생활문화는 ‘국민 스스로가 문화예술은 물론 생활 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까지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과 자율성 및 창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표현하고 활동하는 일체의 문화적 권리’로 확장 해석할 수 있다.

참고 :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속 생활문화의 의미

2001년 공표된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의하면 ‘문화예술’을 ‘예술, 미디어예술, 전통예능, 예능, 생활문화, 국민오락, 출판물, 문화재, 민속예능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하위 영역에는 다시 각각의 세부 장르를 배치하여 3단계의 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먼저 이 법 제8조의 ‘예술분야’를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기타 예술(미디어 예술 제외)’로 정의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한 ‘문화예술’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다음 제9조는 ‘미디어예술분야’, 다음 제10조는 ‘전통예능분야’, 그 다음 제11조 ‘예능분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제12조에 본 장에서 살피고자 하는 ‘생활문화분야’가 나오는데, ‘차도, 꽃꽂이, 서도,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화’로 정의하고 있다.

10)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11)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





전주 문화의집 20년



전주 문화의집 20년

1. 연보

2000

4월 20일 진북문화의집 개관. 이종근 관장 선임

6월 19일 진북문화의집 이용 시민 인구수 대비 전국 1위 순수 이용객 2위.
이종근 관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수상

2001

2월 16일 진북문화의집 이종근 관장 전국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부
회장 선출

3월 15일 삼천문화의집 개관 및 신미영 관장 선임

11월 12일 진북문화의집 문화관광부 문화의집 분야 장려상 수상

2002

3월 21일 효자문화의집 개관 및 서양렬 관
장 선임. 22일 우아문화의집 22일
개관

4월 11일 이중문화의집 개관 및 임병용 관
장 선임

10월 17일 진북문화의집 문화의집 분야 최
우수 기관 선정

2003

- 2월 진북문화의집 고준석 관장 선임
- 4월 삼천문화의집 박원희 관장 선임
- 11월 24일 인후문화의집 개관 및 이명연 관장 선임

2006

- 2월 우아문화의집 김영심 관장 선임
- 3월 삼천문화의집 이준호 관장 선임
- 9월 전주문화의집 연합발표회 개최
- 10월 삼천·효자문화의집과 전북민예총, 삼천·효자동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전주역사 박물관 등이 함께 삼천둔치에서 갯강놀이 축제 개최

2005

- 1월 효자문화의집 김선태 관장 선임
인후문화의집 홍성렬 관장 선임
- 6월 16일 전주시와 5개 문화의집 전통문화센터에서 워크숍 진행
- 8월 전주문화의집 공동기획 '전주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여인락' 개최
- 10월 삼천, 효자문화의집 공동주관 '효자삼천갯강축제' 개최

2004

- 1~12 전주문화의집 문화프로그램 운영
- 11월 인후문화의집 김태균 관장 선임

2007

- 1월 전국문화의집 축제 를 전통문화센터에 전국 157개 문화의집이 모여 <문화야 사랑해>주제로 개최. '문화의집 미래비전' 선포
- 11월 우아, 인후, 진북문화의집 공동 '한브랜드로 전주 바로보기' 진행

2008

- 1월 진북문화의집 김진돈 관장 선임. 삼천문화의집 이준호 관장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 4월 인후문화의집 김현갑 관장 선임
- 10월 전주시 문화의집 공동프로젝트 진행 및 워크숍 개최. 전주문화의집 비전 선언. 삼천, 효자문화의집 효자·삼천 갯강 축제 진행

2009

- 3월 삼천문화의집 이수영 관장 선임
- 7월 25일 전주시 5개 문화의집 어깨동무 프로젝트-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한 여름의 Culture Story' 진행
- 12월 삼천문화의집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선정

2010

1~12 전주문화의집 문화프로그램 운영

2012

1월 삼천문화의집 이두현 관장 선임.
전주문화의집 사업 계획 기자간담회 개최
2월 전주문화의집 연합 대보름 행사 진행.
3월 전주시의회 15일 제287회 본회의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통과

2013

5월 '다섯 빛깔 문화 이야기,
문화의집 전체 워크숍' 진행
9월 전주시 문화의집 축제 '뜻밖의 휴가' 진행

2011

1월 진북문화의집 조세훈 관장, 우아문화의집 최경성 관장,
효자문화의집 강현정 관장 선임
4월 전주문화의집 협회 설립 및
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워크숍 진행
6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2011 전주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축제
- 아시아 빌리지' 경기전 주차장에서 운영
7월 전주문화의집 어깨동무 프로젝트
'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 왜망실의 날' 제정
10월 전주 문화의집 포럼 '창의적인 시민의 삶과 문화의집' 진행

2014

- 1월 삼천문화의집 최기춘 관장, 진북문화의집 한천수 관장 선임.
- 7월 삼천, 인후, 진북, 효자문화의집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선정
- 11월 전주문화의집 포럼 '전주의 생활문화 꽃 피우다' 개최

2015

- 5월 인후문화의집 고미숙 관장 선임
- 9월 삼천, 인후, 진북,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진행
- 10월 전주문화의집협회와 전주문화재단 공동 주관 '뜻밖의 휴가' 덕진공원에서 진행

2016

- 3월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진행
- 8월 <대한민국 생활문화축제>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개최

2017

- 1월 효자문화의집 선흥진 관장 선임
- 4월 전주 5개 문화의집 '지붕 없는 공연장' 진행
- 5월 전주문화의집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 10월 전주 5개 문화의집 오픈하우스 진행

2018

- 1월 전주문화의집협회 공동기획 프로그램
'전주 명인과 함께하는 지붕 없는 문화장터' 진행
- 5월 우아문화의집 이진복 관장 선임
- 9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평생학습한마당
'성인기의 생활문화' 운영
- 10월 전주 5개 문화의집 오픈하우스 진행



2021

- 1월 전주 5개 문화의집이
5개 생활문화센터로
전환 운영

2020

- 1월 삼천, 우아문화의집 전주시 주무부서 직접 운영
- 7월 전주문화의집 워크숍 진행. 전주시 문화의집 TFT 활동 결과 보고 및
운영위원회 결의안 채택
- 9월 '전주문화의집 20년' 기념 책자 발간 결정, 22일 전주시의회
제374회 본회의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 1월 전주 5개 문화의집 권역별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꿈돼지 장터' 개최
- 2월 전주 5개 문화의집 컨소시엄 사업 '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각자 진행 결정
- 12월 인후, 진북,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 연장 / 삼천, 우아문화의집 전주시 직접
운영

2. 주요 기록

2000년

4월 20일 오후 2시 진북1동사무소에 전주시 제1호 문화의집인 진북문화의집 개관.

이철량 운영위원장과 이종근 관장 선임.

5월 진북문화의집 문화 프로그램 개설 및 수강생 모집.

6월 진북문화의집 19일 이용 시민 인구수 대비 전국 1위 순수 이용객 2위 보고. 동월

이종근 관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수상.

8월 진북문화의집과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공동 〈제1회 전주문화체험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개설.

12월 진북문화의집 이종근 관장 『한국문화의집 바로알기』 발간. 동월 16일 수강생 전시회와 발표회 진행.

2001년

2월 진북문화의집 16일 이종근 관장 전국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부회장 선출. 3월 개관 예정 삼천문화의집 운영책임자와 행정요원 공개 모집 진행.

3월 전주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13일 발족. 문치상 운영위원장 이종민 부위원장 선출. …… 삼천문화의집 15일 개관.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운영. 신미영 관장 선임.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설.

4월 진북문화의집 4일 ‘직장인을 위한 틈새 음악회’ 개최. 20일 진북문화의집 개관 1주년 방문객 8만6천7백 명 돌파.

7월 진북문화의집 하반기 요일별 레퍼토리 마련 및 진행

10월 삼천문화의집과 진라북도언어문화연구소 한글날 기념 특강 ‘방언으로 들여다본 전라도 사람들의 삶’ 진행.

11월 진북문화의집 12일 문화관광부 실시 문화의집 분야 장려상 수상.

12월 삼천문화의집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및 무료 강좌 운영.

2002년

1월 진북문화의집 개관 1년 7개월 만에 시민 20만 명이상 이용. 15일 수탁기관 진북1동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 2002년 10대 중점사업 발표.…… 삼천문화의집 <우수졸업생 초대조각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개최.

2월 삼천문화의집과 진북문화의집 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및 서양렬 관장 선임.

3월 효자문화의집 21일 개관식 진행 및 상반기 프로그램 개설.…… 우아문화의집 22일 개관식 진행. 우아동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위탁 운영. 문화 강좌 개설.…… 진북문화의집 개관 2주년 기념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4월 아중문화의집 11일 개관식 진행, 임병용 관장 선임.…… 효자문화의집 자원봉사단 발대식.

6월 진북문화의집 1일 이종근 관장 온라인 문화 커뮤니티 ‘전북닷컴’ 개설.…… 효자문화의집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 결연식 진행.

7월 삼천, 아중, 우아, 진북, 효자문화의집 방학 특집 프로그램 개설.

10월 진북문화의집 17일 문화관광부 문화의집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26일 덕진공원에서 ‘전주 시민을 위한 한 가을의 음악여행’ 개최.…… 효자문화의집 효자동 가족문화축제 진행.

11월 삼천문화의집 5일 삼천남초등학교 강당에서 극단 안데르센 초청 ‘아기돼지 6남매’ 공연 개최.

12월 삼천문화의집 겨울방학 6개 특별 프로그램 운영.

2003년

1월 삼천문화의집 설맞이 민속놀이 개최. 효자문화의집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

2월 진북문화의집 17일 고준석 관장 선임.

3월 진북문화의집 5일 운영협의회 개최. 아중문화의집 12일 시청작 전 문교실 개강.

4월 삼천문화의집 삼천동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위탁 운영. 박원희 관장 선임. 아중문화의집 ‘반전 영화’ 상영.

5월 효자문화의집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효자동 역사 찾기 진행.

7월 아중문화의집 영상릴레이 ‘한 여름 밤의 가족 발레 축제’ 진행. 효자문화의집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

8월 삼천문화의집 도자기 현장 체험 개최. 한국박물관연구회와 단청체험학습 운영. 2003우수만화 원화작품 전시.

10월 삼천문화의집 삼천둔치에서 가을음악회 개최.

11월 아중문화의집 17일 제5회 아중영화관 ‘Good Bye 장국영’ 개최. 인후문화의집 24일 개관. 이명연 관장 선임. 효자문화의집 문화강좌 수강생 발표 및 전시회 진행. 문화복지 1호-3호 발간.

12월 진북문화의집 16일 수강생 발표회 개최.

2004년

1월 삼천문화의집 김광석 추모 콘서트 개최. 인후문화의집 도자기 체험학습 진행. 효자문화의집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

2월 인후문화의집 정월대보름맞이 지신밟기 진행. 효자문화의집 겨울방학 캠프 선비문화 체험 진행.

3월 아중문화의집 새봄맞이 9개 분야 65개 강좌 개설. 인후문화의집 소식지 〈안골사람들〉 격월간 발행. 진북문화의집 매주 토요일 AV감상실 영화 상영. 삼천문화의집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 동월 봄맞이 포크 라이브 무대 진행.

4월 진북문화의집 1일 건강 특강 개최.…… 삼천문화의집 장애우와 함께 하는 희망의 노래 콘서트 진행.…… 인후문화의집 북크로싱 운동 진행. 제1회 안골 어린이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 주말 토요 가족노래방 진행.

5월 아중문화의집 제7회 아중영화관 ‘7일 간의 세계기행’ 개최.…… 인후문화의집 제1회 어린이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과 청소년 직장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 수요테마극장 영화 상영.

6월 삼천문화의집 ‘6월의 수채화’ 테마로 포크음악 콘서트 개최.…… 효자문화의집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당나귀 음악회 개최.

7월 삼천문화의집 영화 감상실 운영. ‘여름밤의 세레나데’ 테마콘서트 공연.…… 인후문화의집 ‘가족문화체험 엄마랑 아빠랑’ 진행.…… 효자문화의집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 우아문화의집 간병인 교육 완료 및 의료기관 파견.

8월 진북문화의집 5일부터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교실 마련.…… 인후문화의집 계층별체험프로그램 생활도자기체험교실, 판소리, 유아레크레이션 운영.…… 효자문화의집 여름방학 소달구지 캠프 진행.

9월 아중문화의집 직장인을 위한 문화강좌 개설.…… 효자문화의집 추석 한마당 ‘강강수월래’ 운영.

10월 삼천문화의집 7일 삼천둔치에서 ‘가을밤의 향연’ 개최. 15일부터 ‘문학강연 및 포크시낭송의 밤’ 진행.…… 아중문화의집 22일부터 제4회 저북 퍼블릭 액세스시핀 영상제 개최.…… 우아문화의집 14일부터 동신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축제 한마당’ 개최.…… 진북문화의집 16일 전북시낭송회 창립.…… 효자문화의집 당나귀 음악회 개최.

11월 아중문화의집 5일부터 제5회 전북여성영화제 개최.…… 인후문화의집 ‘서해 최북단 백령도 역사기행’ 진행. 김태균 관장 선임

12월 삼천문화의집 전북대 구정문 앞 클럽 투비원에서 송년음악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제1회 ‘안골어울마당’ 개최.…… 효자문화의집 동지 팔죽 축제 진행. 문화복지 4호-8호 발간.

2005년

1월 아중문화의집 토요가족극장 '전사들의 모험 이야기', 테마여행 '신명나고 흥겨운 마당놀이' 진행.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로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겨울방학 프로그램 마련.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로 놀이패 우리마당 선정 및 김선태 관장 선임.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 삼천문화의집 문학기행 진행. 인후문화의집 '새해맞이 경주 역사기행' 진행. 시각장애인용품 전시회 및 시각장애인 체험, 홍성렬 관장 선임

2월 인후, 효자문화의집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3월. 인후문화의집 지역경제 프로그램 '재래시장에 장보러 가요' 진행.

5월 삼천문화의집 특별프로그램 '미술아 놀자!!' 거마공원에서 진행. 인후문화의집 가정 법률 상담 진행. 제2회 어린이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어린이 과학 창의력 교실' 운영. 효자문화의집 21일부터 전복사랑! 역사 문화기행 진행

6월 전주시와 5개 문화의집 16일 전통문화센터에서 워크숍 진행.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원 등 문화시설 확대로 중복 프로그램 심화에 대한 자구책 마련의 자리, 차별화와 테마별 특성화 그리고 권역별 개편 등의 방향성 제시. 삼천문화의집 '독자와 함께하는 테마문학 기행' 전남 보성에서 진행.

7월 삼천문화의집 7일부터 '전주시 문화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진행. 효자문화의집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

8월 전주문화의집 공동기획 '전주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여인락' 개최. 삼천문화의집 '신문기자가 되고 싶어요' 진행. 6일부터 충북 보은군 서당골 천문관측대 별자리 캠프 진행.

9월 효자문화의집 삼천 사랑 생태탐사 진행.

10월 삼천, 효자문화의집 공동주관 '효자삼천갯강축제' 개최. 인후문화의집 '천년전주사랑 전통체험' 참여. '제2회 안골어울마당' 진행.

11월 인후문화의집 제1회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최우수상 수상.

12월 진북문화의집 9일 수강생 발표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안골 아카데미 개최. 난치병어린이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모금액 전달. 연말 '가족사랑음악회 그 첫 번째' 진행.

2006년

1월 인후문화의집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참여.

2월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로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김영심 관장 선임.…… 효자문화의집 정월대보름맞이 ‘굿’ 진행.

3월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로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선정. 이준호 관장 선임.…… 인후문화의집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천사들의 합창’ 참여.…… 효자문화의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4월 인후문화의집 아중분수대공원에서 찾아가는 풍납제 공연 진행.

5월 삼천문화의집 삼천남초등학교 강당에서 ‘터널 속 대탐험’ 개최.…… 인후문화의집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모금액 전달.…… 효자문화의집 초등학교 대상 효자마을 상상 풍경 진행.

6월 진북문화의집 시창작 교실 수강생 모집 및 진행.…… 인후문화의집 ‘골목안 자라는 꿈’ 진행.…… 효자문화의집 문화바우처’신나는 예술여행’주관처 선정.

7월 삼천문화의집 ‘특별한 여름나기’ 진행.

8월 삼천문화의집 지역주민 소장 그림 ‘우리동네 산책나온 그림전’ 개최.…… 효자문화의집 삼천사랑 생태탐사 진행.…… 우아문화의집 성인 문해교육 ‘전주 희망학교’ 10개 기관과 공동 진행.

9월 전주문화의집 연합발표회 개최 및 제2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축제 속의 축제’ 참가.…… 진북문화의집 21일 운영위원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개최 및 모금액 전달. 안골아카데미 강좌 ‘웃음치료’ 진행. ‘남원좌도농악 in 全州’ 진행.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삼천, 효자문화의집과 진북민예총, 삼천2동, 삼천3동, 효자3동, 삼천2·3동 효자3동 주민자치위원회, 전주역사박물관 등이 함께 삼천둔치에서 갯강놀이축제 개최.…… 인후문화의집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헌혈증서와 모금액 전달. ‘안골 어울마당 그 세 번째’ 행사 참여.

12월 삼천문화의집 ‘한지민속부조작품전’ 개최. 인후문화의집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모금액 전달. 전주시장 표창 제840호 수상. 효자문화의집 ‘동지축제’ 진행. 1월



2007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문화야 사랑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센터에서 전국 157개 문화의집이 모여 ‘전국문화의집 축제’ 개최. ‘문화의집 10년의 발자취, 그리고 미래’ 포럼 진행 및 ‘문화의집 미래비전’ 선포. 인후문화의집 인후공원 해맞이 행사 참여. 방학특강 운영. 우아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2월 인후문화의집 미술 프로젝트 ‘오감으로 놀자’ 진행.

3월 진북문화의집 26일 운영협의회 개최

4월 진북문화의집 B-Boy교실 개설. 인후문화의집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헌혈증서와 모금액 전달.

5월 인후문화의집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헌혈증서와 모금액 전달. 가정법률 열린강좌 진행.

6월 인후문화의집 어린이 대상 음악 프로그램 운영.

7월 효자문화의집 수화 인형극 진행.

9월 삼천문화의집 '우리동네 소장품'전 진행.

10월 인후문화의집 안골 어울마당 진행.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헌혈증서와 모금액 전달.…… 우아문화의집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전주 삼천 깃발 축제 진행.

11월 우아, 인후, 진북문화의집 공동 '한브랜드로 전주 바로보기' 진행.…… 진북문화의집 3일 롯데백화점 옥상 스카이파크에서 '제7회 진북문화의집 축제 한마당' 진행.…… 삼천문화의집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세 여자의 행복한 공예'전 주관.…… 효자문화의집 장애인 타악연주단 창립 및 순회 공연.

12월 12월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전주문화원,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인후문화의집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헌혈증서와 모금액 전달.…… 효자문화의집 동지축제 진행.

2008년

1월 진북문화의집 김진돈 관장 선임.…… 삼천문화의집 이준호 관장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인후문화의집 인후공원 새해 해맞이 행사 참여.

2월 진북문화의집 강사간담회 개최. 13일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 일반부 대상 수상.…… 삼천문화의집 설날 특별프로그램 '관장님 놀아주세요' 진행.…… 우아문화의집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장려상 수상.…… 인후문화의집 문화기행 진행.

3월 진북문화의집 27일 운영협의회 개최.

4월 효자문화의집 '정 심고 봉꽃타요' 진행.…… 인후문화의집 김현갑 관장 선임

5월 인후문화의집 '소중한 우리아이 날개달기' 참여.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및 헌혈증서와 모금액 전달.…… 효자문화의집 우리 가족 공감 통통 스토리 진행.

6월 인후문화의집 찾아가는 안골어울마당 개최. 효자문화의집 '단옷날 옛 사진으로 즐기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운영

8월 진북문화의집 1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과 여름방학특강 진행.

9월 진북문화의집 우리춤장수체조 동아리 해맞이 페스티벌 참가 및 시장상 수상. 한문지도자 수강생 자격증 8명 취득. 26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북일초등학교에서 안골 어울마당 진행. 효자문화의집 천년전주 사자소학 프로젝트 진행.

10월 전주시 문화의집 공동프로젝트 오픈하우스 진행 및 전주문화의집 워크숍 개최. 2008 전주문화의집 비전 선언. 삼천, 효자문화의집 효자·삼천 갯강 축제 진행. 진북문화의집 17일 오픈하우스 확장 회원 발표회 진행. 인후문화의집 인후동 마을 지도 제작 및 배포.

11월 효자문화의집 수화인형극 발표회 진행.

2009년

1월 인후문화의집 '인후공원 해맞이 행사' 참여. '기린동네 가족백서' 전시회 진행.

2월 진북문화의집 2일 운영협의회 개최, 운영규정 변경 관련 심의 의결. 11일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 일반부 부문 얼씨구상 수상. 13일 그룹사운드 J&B KBS 전주아침마당 방송 출연. 인후문화의집 전주시민 한소리하기 전주시장상 한소리상 수상. 문화기행. 결식 아동 돕기 모금액 장학금 지급. 효자문화의집 '정월 대보름 굿!' 행사 진행.

3월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로 사단법인 기점놀이보존회 선정. 이수영 관장 선임. 진북문화의집 봄맞이 특강 진행.

4월 효자문화의집 1일부터 판화가 지용출 전시회 개최. 진북문화의집 3일 덕진구청 행사에 소속 동아리 참가. 7일 운영협의회 개최. 16일 서양화 회원 개인전 개최. 21일 우리춤장수체조 전주교통방송 취재. 인후문화의집 지용출 목판화전 '소리여행' 개최. 전주문화의집 연합워크숍 진행.

5월 진북문화의집 6일 컴퓨터 무료교육 실시. 25일 이오순, 이승희 2인전 개최.
28일 MBC라디오쇼 오카리나와 태극권기체조 등 소개.

6월 효자문화의집 문화예술기행 ‘파라오와 미라’ 개최. 서신동 재뜸마을 생활 공동체 사업 진행.…… 진북문화의집 4일 해맞이 실버축제 참가 및 ‘어화! 풍년이야’상 수상. 7일 건강다이어트댄스 무료 교육. 15일 운영협의회 개최.

7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25일 어깨동무 프로젝트-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한 여름의 Culture Story’ 진행.…… 진북문화의집 ‘한자야, 놀자~’, ‘테마가 있는 수채화’ 진행.…… 인후문화의집 1차 농촌문화체험 진안에서 진행.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 소풍’ 진행.

8월 인후문화의집 2차 농촌문화체험 진행.

9월 진북문화의집 ‘테마가 있는 수채화’ 전시회 개최. 7일 수채화 회원 개인전 진행. 14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안골거리의 향연 참여. ‘가족백서 그 두 번째 이야기’ 진행.…… 우아문화의집 30일 전주역 광장에서 귀성객 환영 놀이 마당 공연 개최.…… 효자문화의집 전주시 문화의집 공동프로젝트 ‘한절리 문화지표조사’, 황방산을 시로 쓰다’ 진행.

10월 진북문화의집 5일 한자한문지도사 양성반 개설. 16일 가을문화답사(충남 부여 일대) 진행. 21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온고을 문화 바로 알기 특강 진행. 28일부터 오픈하우스와 수채화 작품전시회 개최.…… 삼천문화의집 주관 22일부터 ‘2009 세내 전통문화축제’ 진행.

11월 삼천문화의집 삼천 2동 이야기 지도 제작 배포. 삼천문화의집과 삼천동 아트데이 주민기획단이 함께 ‘삼천동 아트데이’ 개최. 25일 삼천둔치 특설무대에서 삼천문화의집 프로그램 발표회 진행.…… 인후문화의집 창작 판소리 ‘왜망실턴’ 발표.…… 우아문화의집 퓨전국악뮤지컬 ‘우리가족 이야기 보따리’ 진행.…… 효자문화의집 한절리 문해교실‘내 이름은 윤순기’, 효자동사람들 인문학 강좌‘전주의 소소한 여성 이야기’ 진행.

12월 진북문화의집 17일 운영협의회 개최 및 2010년 주요 활동 계획 발표.…… 삼천문화의집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선정.

2010년

1월 인후문화의집 '경인년 새해 해맞이 행사' 참여. 겨울방학 특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2월 효자문화의집 정월대보름 '서신동 달맞이 가세'행사 진행.

3월 진북문화의집 2일 미취업 여성 컴퓨터 무료 교육, 26일 실버세대 핸드폰 무료 교육,..... 삼천문화의집 '토요일N 문화놀이터' 진행,..... 인후문화의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진행. 전주 시민 한소리 하기 참여,..... 효자문화의집 세내 권역 문화 예술 공간화 프로젝트 진행.

4월 진북문화의집 9일 환경문화축제 참가,..... 삼천문화의집 '신나는 토요 나눔 장터' 개최,..... 효자문화의집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과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진행.

5월 삼천문화의집 '삼천문화지도' 제작.

6월 진북문화의집 6일 전주시민 한소리하기 참가, 16일 단오제에 소속 동아리 그룹 사운드J&B, 어울림봉사대 참가, 24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마을축제 '명주골 이야기' 참여. 전북민족예술제 프린지 페스티벌 출전 및 전주시의회 의장상 수상,..... 효자문화의집 문화자원봉사단'효자동 사람들' 자원봉사활동 참여 협약.

7월 인후문화의집 왜망실 마을축제 '여름, 함께해요' 진행,..... 삼천문화의집과 전주생태하천협의회 공동 '세내 아이들의 놀이터 삼천' 개최.

8월 삼천문화의집 민족문화강좌 진행 및 재현 행사,..... 인후문화의집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사업 진행.

9월 진북문화의집 '진북동 마을 이야기 지도 만들기', '진북문화의집 가을마당', '진북문화의집 이야기'책자 등 일정 계획 발표, 18일 운영협의회 개최,..... 삼천문화의집 4일 '한 여름 밤의 꿈' 거마공원에서 개최.

10월 삼천문화의집과 (사)기접놀이보존회 주관 30일 '2010세넷가싶다리축제' 개최.

11월 삼천문화의집 '이야기를 담은 숲' 테마 삼천2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공공 미술작업 진행.

12월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한국마을연구소,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공연문화발전연구소 명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문화연구 창 선정,..... 효자문화의집 전북 문화바우처 체험 수기 전시회 전라북도청 로비에서 진행.

2011년

1월 진북문화의집 조세훈 관장, 우아문화의집 최경성 관장, 효자문화의집 강현정 관장 선임. 진북문화의집 10일 진북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장 선출, 운영내규 심의 및 사업계획 발표. 진북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효자동 사람들 사진 전시회 '언니 이야기' 개최.

2월 진북문화의집 전주시민 대상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회원 대상 시설 만족도 조사 실시. 인후문화의집 '도마다리' 동화책 시민 대상 배포. 문화기행 '샤갈&피카소의 감동을 만나다' 진행.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 참여. 효자문화의집 정월대보름 '전주천 달맞이 가세' 참여, 효자동 사람들 소양교육 진행.

3월 진북문화의집 중앙버드나무 상인회와 노송천 문화 만들기 협약. 31일 운영위원회 개최. 삼천문화의집 삼천3동 이야기지도와 삼천문화지도 발행.

4월 전주문화의집 협회 설립 및 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워크숍 진행. 진북문화의집 새움지역아동센터 및 한울안 쉼터와 '예술 공연 만들기 사업' 시작. 인후문화의집 한옥마을예술공동체와 상설공연 '풍류미락' 공동 주관. '마을 이야기와 함께 떠나는 同苦同樂' 진행. '인후동 희망사다리 네트워크' 구성 및 네트워크 기관(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 도담지역아동센터, 동북초 등) 간 협력체계 구축.

5월 진북문화의집 14일 중앙시장 노송천 일대에서 '노송천 문화만들기' 공연 진행. 인후문화의집 어린이를 위한 사랑콘서트 개최. 효자문화의집 '세대로 놀러 간 아이들' 발대식 진행. 우아문화의집 협력기관 아름다운 세상 회원들과 정신장애우 밴드 결성.

6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2011 전주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축제 - 아시아 빌리지' 경기전 주차장에서 운영. 진북문화의집 25일 '노송천 문화만들기' 2차 공연 진행. 인후문화의집 어린이를 위한 사랑콘서트 진행. '인후동 문화유산 공감' 사업 일환 인후동 버스승강장 아케이드 설치. 효자문화의집 전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 네트워크 운영.

7월 전주문화의집 어깨동무 프로젝트 ‘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 왜망실의 날’ 제정. 삼천문화의집 19일 ‘세내예술나눔 워크숍’ 개최. 5개 문화의집 관장들 지역 특성 반영 문화의집 명칭 변경 의견 제시. 진북문화의집 19일 동중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밴드 교육 시작. 21일 운영위원회 개최. 삼천문화의집과 삼천동 지역 문화예술 인력 공동 ‘세내 예술나눔(ART&SHARING) 프로젝트’ 구성. ‘세내골 음악회’와 ‘세넷가 창작갤러리’ 진행. 인후문화의집 ‘희망플러스 워크숍’ 일본 국외연수 진행. 효자문화의집 제10회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 환경지킴이 수상.

8월 진북문화의집 ‘노송천 문화 만들기’ 창의학교 시작. 8일부터 ‘여름 문화학교’ 진행. 삼천문화의집 여름방학 맞이 ‘우리 마을 이야기탐방’ 진행. 효자문화의집 가족 생태탐사대 ‘세내놀이터’ 진행.

9월 삼천문화의집, 평화1·2동주민센터, 평화동 복지네트워크, 평화동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와 함께 평화동 이야기지도 제작. 진북문화의집 24일 ‘노송천 문화만들기’ 공연 진행. 효자문화의집 우리동네 축제 ‘효, 자, 동’ 진행. 우아문화의집 여성연극집단 ‘수다’ 참여자 모집.

10월 전주 문화의집 포럼 ‘창의적인 시민의 삶과 문화의집’ 진행. 진북문화의집 ‘희망체험’ 프로젝트 시작. 15일 콘소시움 사업 노송천 상설 문화공연 매주 토요일 진행. 26일 운영위원회 개최. 삼천문화의집과 2011세내문화축제시민기획단 주관 ‘2011세내문화축제’ 삼천천 부근에서 개최. 인후문화의집 ‘2011 뮤직파크 in 전주’ 아중분수대에서 진행. 효자문화의집 ‘2011 뮤직파크 in 전주’ 도내기 샘 공원 문화공연 진행. 우아문화의집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20일부터 주민문화축제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 개최.

11월 진북문화의집 『진북동·태평동 이야기지도』 발간. 인후문화의집 문화학교 COP ‘동네가 키우는 아이들, 동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진행. 효자문화의집 ‘전주 독서나눔 콘서트’ 진행. 연구모임 ‘옴트는~소통’ 운영.

12월 진북문화의집 22일 ‘노송천 동지 팔죽 잔치’ 진행. 인후문화의집 ‘인후동 희망사다리 네트워크, 동지 마을 축제’ 진행. 효자문화의집 동짓날 ‘알이 동동, 정이 동동’ 진행.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우수기관 선정. 우아문화의집 ‘우아동 골목길 아트데이-어울림’ 개최.

2012년

1월 삼천문화의집 이두현 관장 선임,..... 전주문화의집 사업 계획 기자간담회 개최,..... 진북문화의집 12일 운영위원회 개최.

2월 전주문화의집 연합 대보름 행사 진행,..... 효자문화의집 서신동 정월대보름 축제 진행.

3월 전주시의회 15일 제287회 본회의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통과,..... 우아문화의집 ‘즐거운 뮤지컬 학교’ 시작.

4월 진북문화의집 콘소시움사업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진행. 26일 운영위원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인후동, 향수에 빠지다’, ‘한땀 한땀 수놓는 나의 하루’ 운영,..... 효자문화의집 ‘세네플랫폼’ 기관네트워크 진행.

5월 진북문화의집 ‘3D연극배우학교’, ‘멘토단, 학교를 짓다’ 진행,..... 인후문화의집 전국문화의집 축제 참여,..... 효자문화의집 문화자원봉사단 역량강화 교육.

6월 인후문화의집 ‘천둥소리 남원농악 발표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중복천 온 새미로를 꿈꾸다’, ‘효자동 이야기쟁이’ 진행.

7월 진북문화의집 27일 운영위원회 개최. 30일 ‘여름 문화학교’ 시작.

9월 우아문화의집 1일 주민축제 ‘즐거보세! 우아동’ 개최,..... 효자문화의집 ‘호락 호락 행복동’세내 마을 축제 개최,..... 진북문화의집 24일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홍보행사 지원.

10월 인후문화의집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참여. 인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개관식 ‘책으로 경작하는 인후동네’ 진행.

11월 진북문화의집 『주민이 말하는 지역명소 이야기』 책자 발간.

12월 효자문화의집 동지팔죽 나눔 행사 진행

2013년

1월 전주문화의집 사업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2월 인후문화의집 ‘더하고 나누는 도심 속의 예술캠프, 끝림 I-Ⅱ’ 진행.…… 효자문화의집 서신동 정월대보름‘전주천 달맞이 가세’행사 지원.

3월 진북문화의집 ‘3D연극학교’ 시작. 13일 운영위원회 개최.…… 우아문화의집 ‘즐거운 뮤지컬 학교’ 시작.…… 인후문화의집 문화기행 ‘팀버튼전’ 기획 운영.…… 효자문화의집 예술캠프 ‘울림’ 진행.

4월 인후문화의집 예술캠프 ‘설렘설렘 운동회’ 진행.…… 효자문화의집 ‘세내문화예술 동네를 꿈꾸는 아지트’진행.

5월 ‘다섯 빛깔 문화 이야기, 문화의집 전체 워크숍’ 진행.…… 인후문화의집 난치병 어린이돕기 사랑콘서트를 진행. ‘인후동 희망목공소’ 운영.…… 효자문화의집 도량살리기 사업‘온새미로’ 진행.

6월 삼천문화의집 1일부터 ‘삼천 in 디지털 : 삼천동막걸리골목’ 진행.…… 효자문화의집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북북’ 활동 시작.

7월 삼천문화의집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 진북문화의집 29일 ‘여름 문화학교’ 시작. 30일 운영위원회 개최. 직장인밴드 독립.…… 인후문화의집 ‘도서관 놀이터, 수요일엔 도서관에서 놀자!’ 진행.

8월 삼천문화의집 막걸리 골목에서 막걸리 콘서트 개최. 26일 거마공원에서 ‘거마공원 음악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제12회‘강의 날’ 대회 참가.

9월 6일에서 9일까지 전주시 문화의집 축제 ‘뜻밖의 휴가’ 진행. 동아리 갈라(gala), 라디오 스타, 뜻밖의 전시, 아카이브, 뜻밖의 캠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전주시민에게 제공 및 문화의집 활동 소개.…… 인후문화의집 ‘인후동네 작은 음악회’ 진행.

11월 효자문화의집 ‘세내야 우지마라’ 진행. 문화자원봉사단‘북북’그림자극 공연.…… 우아문화의집 23일 전주역에서 ‘2013 명주골 어울림한마당’ 개최.

12월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원 모악 선정.…… 진북문화의집 ‘진북동 해결사 할머니’, ‘3D 연극학교’ 사업 종료. 『주민이 말하는 지역명소 이야기』 책자 발간.…… 인후문화의집 ‘나.를.봄.니.다’ 진행.



2014년

1월 삼천문화의집 최기춘 관장, 진북문화의집 한천수 관장 선임. 삼천문화의집 20일 운영협의회 개최. 운영협의회 회장 선출, 사업계획 발표. 인후문화의집 도서관 놀이터 진행. 진북문화의집 9일 강사간담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선정.

2월 인후문화의집 정월대보름 행사 참여. 효자문화의집 '대보름 달맞이가세'행사 지원. 진북문화의집 24일부터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3월 삼천문화의집 '우리동네 초록별이 자란다' 운영. 26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진행. '꿈을 만드는 아이들' 시작.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봉사단' 진행. 진북문화의집 31일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장 선출, 사업계획 발표 및 재물 관리.

5월 삼천문화의집 27일 '삼천마을신문 주민기자학교' 시작.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선정. '온새로미'생태실천 활동. 인후문화의집 전주문화의

집 워크숍 ‘자연으로 채우다’ 진행. ‘지금, 우리에게 캠핑’, ‘우리는, 인후동 희망목수’ 사업 시작.

6월 진북문화의집 14일 ‘안면(顔面)을 바꾸다’ 활동 시작. 23일 운영위원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자스민 예술단 정기공연 진행.…… 삼천문화의집 삼천마을 신문 발행 논의. 30일 운영협의회 개최.

7월 진북문화의집 1일 ‘황혼의 여정 나빌레라’ 시작. 4일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선정.…… 삼천문화의집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선정. 예술티발 진행.…… 우아문화의집 4일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생활문화 마을지기’ 시작. ‘우리동네 이야기 연극놀이 캠프’ 진행.…… 인후문화의집 문화기행 ‘Troika와 오르세미술관전’ 참여. 문화나눔 봉사활동 ‘문화공감연, 즐거운 물입! 행복한 상상!’ 시작.

8월 삼천문화의집과 전북문화예술지원센터 주관 ‘삼천동 마을일꾼, 삼천사람’ 진행.…… 인후문화의집 연극놀이 ‘Creative Drama’ 진행.…… 효자문화의집 제12회 강의 날 대회 참가 청소년 노벨환경상 수상.

9월 인후문화의집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진행.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한옥마을 공연 진행.…… 진북문화의집 23일 운영위원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마을문화축제 ‘행복으로 채우다’ - 수(水)상한 작당 진행.

10월 인후문화의집 ‘육교문화장터, 감장’ 진행. ‘찾아가는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COP‘집주인’연구모임, 담 넘어 예술캠프Ⅱ, 문화동호회 워크숍 ‘힐링’ 진행.…… 진북문화의집 15일 생활문화센터 전문인력 채용. ‘나도 영상작가’ 시작. 생활문화진흥원 컨설팅 시설로 선정.…… 삼천문화의집 2일 운영협의회 개최. 25일~26일 삼천둔치와 거마공원에서 ‘2014 세내 축제’ 개최.

11월 전주문화의집 포럼 ‘전주의 생활문화 꽃 피우다’ 개최.…… 진북문화의집 13일 생활문화센터 추진위원회 결성.…… 인후문화의집 아동기획 및 바느질 특강 운영. 만성질환자에게 감장 수익금 및 사랑 콘서트 수익금 전달.

12월 삼천문화의집과 ‘삼천사람’ 주최 아트마켓 ‘개나리장터’ 진행.…… 인후문화의집 한국 현대미술의 이해(이쾌대) 특강 진행.…… 진북문화의집 책자 『안면을 바꾸다』와 『2014 진북음식디미방』 발간 및 배포. 22일 ‘나의 영상, 스마트폰, 내가 만드는’ 강좌 개설.…… 효자문화의집 회원 송년회 ‘짹하고 해 뜰 날’ 진행.

2015년

1월 인후문화의집 천 개의 그림 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 행사 참여, '희망 목공소' 운영,..... 삼천문화의집 강사 간담회 개최,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진북문화의집 20일 일상인문 '여섯 개의 이미지, 일상의 지형학' 시작, 「나눔신문1호」 발행 및 배포.

2월 삼천문화의집 5일 동아리 간담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도서관 놀이터사업 진행,..... 효자문화의집 건지산문화축제 '커뮤니티매핑' 진행, 제8회 서신동 정월 대보름 축제 지원,..... 진북문화의집 26일 생활문화동아리 한마당 잔치 '음식디미 한마당' 개최, 동일 음식문화 생애생활사 『전주음식디미방』 발간 및 배포.

3월 우아문화의집 'Good job! 무대에서 꿈을 잡(job)아라!' 시작,..... 삼천문화의집 예술텃밭 시작, DIY목공예 '木요일, 나무를 만나는 시간' 특강,..... 인후문화의집 북아트 도서관 특강.

4월 삼천문화의집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운영, 8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주제별로 보는 그림책 이야기' 진행, 생활문화잔치 '삼삼오오' 참여 및 결과물 다문화가정에 선물,..... 효자문화의집 '온새로미를 꿈꾸다' 교육 진행,..... 진북문화의집 주요 민원 해결 위해 주차장 출입차단기 설치,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실시, 6일 운영위원회 개최.

5월 삼천문화의집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인후문화의집 문화예술 특강 진행, 고미숙 관장 선임..... 효자문화의집 문화 봉사단 '북-북' 운영.

6월 우아문화의집 '우리 동네 생활문화디자이너' 참여자 모집,..... 인후문화의집 창의연극 '심향전' 발표회 개최, '인후동 희망목수' 진행, 맛집프로젝트 '밥먹자' 운영.

7월 진북문화의집 9일 운영위원회 개최,..... 삼천문화의집 22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작은 음악회 '리얼 퍼커션 공연' 개최, '광주 대인시장' 선진지 견학, '주제별 그림책 이야기 2' 진행.

8월 진북문화의집 3일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협의회로 명칭과 역할 변경,..... 우아문화의집 26일 전주역 광장에서 '우리동네 페스타' 개최,.....

삼천문화의집 ‘우리동네 불평 박판관’, ‘우리 동네 스타킹’ 진행.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 선진지 ‘삼각산 재미난 마을’ 견학. ‘육교문화장터, 짬장’ 개최.

9월 진북문화의집 2일 ‘찾아가는 생활문화 봉사대’, 4일 ‘부뚜막 푸드토크’, ‘삶의 이미지, 책으로 엮다’ 시작. 16일 생활문화센터 개관 기념행사 진행. 동일 「나눔신문 2호」 발간. 삼천문화의집 12일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진행. 동일 생활문화마켓 ‘개나리장터’ 개최.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및 전시회 ‘춤추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 개최.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행복 토크’ 진행.

10월 전주문화의집협회와 전주문화재단 공동 주관 ‘뜻밖의 휴가’ 16일에서 17일까지 덕진공원에서 진행. 프로그램으로 토크쇼, 부뚜막 레스토랑, 전시 체험, 예술캠프, 생활문화동아리 갈라 공연 등 5개 문화의집 마련. 진북문화의집 2일 운영협의회 개최. 6일 전주MBC〈생방송 뷰〉에 ‘부뚜막 푸드토크’ 방영. 삼천문화의집 14일 운영협의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이세현 사진작가 ‘경계’ 전시회 개최. 문화동호회 대금마을 10주년 연주회 진행.

11월 우아문화의집 20일 ‘우아한 라면 연극제’ 아하아트홀에서 개최. 인후문화의집 ‘뽀빠로 만들기&손편지 쓰기’. 박정섭 작가 초대특강 진행. 효자문화의집 화가데이 ‘자연의 색채’ 전시회 개최.

12월 진북문화의집 『2015 진북음식디미방』 책자 발간 및 온 오프라인 배포. 30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창 의연극 ‘홍부와 놀부’ 발표회 개최. ‘크리스마스 케익 만들기’ 진행. 짬장 기부금 장학금 전달. 효자문화의집 ‘삼천의 삼천가지 모습’ 전시회 개최. 콤마 프로젝트_일상&뜻밖의 섬, 문화동호회 네트워크 파티 ‘청춘’ 진행.

2016년

1월 삼천문화의집 ‘우리 동네 수요극장’ 오픈. 20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스스로 독서교실 1차, 2차’ 진행.

2월 진북문화의집 회원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인후문화의집 ‘꽃다발 만들기’ 특강 진행.

3월 인후문화의집 인문학특강 ‘조선후기의 멋과 아름다움’ 진행.…… 진북문화의집 26일 강사간담회 진행. 30일 운영협의회 개최.…… 우아문화의집 30일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개최.

4월 진북문화의집 4일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활동 시작. 21일 어모작교(어른들이 모여 작당한 교육세미나) 활동 시작.…… 삼천문화의집 <한국 중단편 문학 이해>, <신상옥의 자연의학> 운영. 22일 운영협의회 개최.…… 우아문화의집 ‘무대 위에 꽃봉오리피우다’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선정.…… 인후문화의집 ‘하모니카 작은 연주회’ 개최. 미디어아트와 사진수업 ‘빛, 빛을 품다’, ‘인후동 목공 조각단’, ‘꿈지락 꿈지락’ 시작.

5월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난장 ‘개나리장터’ 시작.…… 우아문화의집 ‘우리동네 페스타’ 우아아파트 내 공원에서 개최.…… 인후문화의집 독서문화프로그램 ‘동화랑 요리랑’ 진행.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몽상 space’ 시작.…… 효자문화의집 문화가 있는 날 이바디 공원에서 진행.

6월 진북문화의집 16일 ‘내추럴초코아트’ 시작. 29일 운영협의회 개최.…… 삼천문화의집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집담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문화가 있는 날 서부시장에서 진행.

7월 진북문화의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의뢰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삼천문화의집 21일 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예술캠프‘THE 올림’, 학교-마을교육공동체‘또보또모’, 권역별 교류 프로젝트‘전·진프로젝트’ 전주와 진안에서 진행.

8월 진북문화의집 8일 문화소의 시설 방문 ‘무지개 열쭉’ 시작. 13일 어울림봉사대 쿨상상환경음악회 참가.…… 삼천문화의집 삼천사람-시민예술가모임 브랜드네임 공모. 최우수작 ‘고살’, 우수작 ‘손끝愛’, 장력작 ‘꽃손’ 선정. …… 인후문화의집 ‘꾸밈이 있는 네일아트’ 진행.…… <대한민국 생활문화축제> ‘全州(전주), 생활문화시장으로 소풍가다’를 주제로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26일~27일 개최. 주요 내용 생활문화 학술세미나 ‘문화가 있는 삶, 전주로 通하다’,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공연·체험·홍보관과 전주 문화의집 전시·체험 부스 운영, 행사로는 대동합굿, 나눔 장터, 버스트리팅, 생활문화 토크쇼, 예술캠프, 생활문화 놀이터 등으로 구성. 전국 문화의집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2016 전주선언> 발표.

9월 효자문화의집 권역별 교류 '전·진(전주·진안)프로젝트', '잇다'진행. 진북문화의집 22일 '생활문화 주차장' 개최. 25일 무지개무용단 제34회 전국국악대전 참가 장려상 수상. 28일 운영협의회 개최.

10월 삼천문화의집 5일 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개최. 18일 한국춤 동아리 제3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참가 및 살풀이 단체전 대상 수상. 22일 세내마을축제 거마공원에서 개최. 진북문화의집 6일 내추럴초코아트 작품 전시회 개최. 17일 예비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동 시작. 22일 무지개무용단 대한민국 환경예능 경연대회 참가. 우아문화의집 12일~14일 '2016 명주골 어우림 한마당' 개최. 인후문화의집 '도예체험' 진행. 인문학 특강 '가족의 스토리로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 개최. 효자문화의집 '예술반상회', 문화동호회 워크숍'편을 짜다' 진행.

11월 삼천문화의집 1일 거마공원에서 '2016 세내마을축제' 개최. 2일 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진행. 2일 '전북 어르신 문화축제'에 진북문화의집 어울림봉사대, 우아문화의집 극단 '봄날'이 참가. 우아문화의집 23일 '우아한 라면연극제' 아하아트홀에서 개최. 인후문화의집 '고추장만들기' 진행. '전주 문화의집 다올마당' 참여.

12월 삼천문화의집 20일 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개최. 29일 동아리 송년회 공연 진행. 진북문화의집 『전주음식이야기』책자와 E-자료집 발간 및 배포. 21일 '진북 생활문화제'진행. 26일 연구보고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략 연구」 발간. 28일 운영협의회 개최. 우아문화의집 23일 '우아한 생활문화축제' 개최. 인후문화의집 '가족시계 만들기',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진행. 효자문화의집 문화봉사단 활동 장미영 교수 특강 진행.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예술기획 My Stage 선정.

2017년

1월 효자문화의집 선홍진 관장 선임. 인후문화의집 '스스로 독서교실' 진행.

2월 인후문화의집 국립전주박물관 진행 정월대보름 행사 참여.

3월 진북문화의집 2층에 상설 전시 공간 설치. 29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
후문화의집 무료 특강프로그램 운영.…… 삼천문화의집 28일 강사 간담회 개
최. 30일 운영협의회 개최.

4월 진북문화의집 3일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동 개시. 동일 ‘2017 황혼
의 여정, 나빌레라’ 시작. 8일 ‘지붕 없는 공연장’ 대학로 광장에서 첫 시작. 26
일 생활문화 ‘동네잔치’ 진행. 동일 문화가 있는 날 ‘우리 동네 생활문화 전(展)’
전시회 개최.…… 우아문화의집 실버극단 ‘봄날’ 입단자 모집 및 활동 진행.……
인후문화의집 ‘푹크림 만들기’ 진행. ‘지붕없는 공연장’ 아중호수에서 첫 시작.
‘1+3평, 가드닝’ 참가자 모집. 문화예술교육 ‘일상의 재해석’ 시작. 청소년 대상
비보잉과 미디어아트 결합 ‘빛, 빛을 품다’ 진행. 지역문화인력 배치 및 활동 개
시.…… 효자문화의집 ‘클래식, 국악, 또래와 포럼’ 진행.

5월 부안에서 전주문화의집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인후문화의집 독후 활
동 ‘메밀군 인형뜨기’ 진행. ‘하모니카 작은 음악회’ 개최. 마을 축제 ‘춤추는 우
리 동네 생활문화’ 개최. ‘다문화 체험교육’ 아동 모집.…… 우아문화의집 전주
역 첫마중길에서 ‘우리동네 페스타’ 개최. 24일 첫마중길 상생협의회와 공동 주
관 ‘전주 첫 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현수식’ 개최.…… 효자문화의집 어르신 대상
‘언제 시작할까?’ 진행. ‘지붕 없는 공연장’ 진행.…… 진북문화의집 31일 ‘생활
문화 비상(飛上)을 꿈꾸다’ 대학로 광장에서 진행.

6월 진북문화의집 9일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평가 동호회 실태조사’ 마무
리. 동일 한국문화의집협회 실무자 회의 진행. 30일 동네 잔치 ‘진북생활문화
제’ 개최.…… 우아문화의집 전주 첫 마중길에서 지붕없는 공연장 버스킹 공연
진행.…… 삼천문화의집 17일 ‘가족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 생활기술 워크숍’ 개
최. 30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인
후1동&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업무협약 체결.

7월 진북문화의집 4일 운영협의회 개최. 19일 강사 간담회 실시. 동일 ‘부뚜막
푸드 토크’ 진행. 26일 마을 잔치 ‘전주음식디미한마당’ 진행.…… 인후문화의집
‘어르신 낭독산책’ 개최.…… 효자문화의집 킬레버레이션 공연 및 전시회 ‘동네
방네 반짝파티’ 진행.

8월 삼천문화의집 16일과 18일 ‘밧줄은 공간을 상상한다’ 개최.…… 우아문화의집 성인 문해교육 현장체험활동 ‘어르신, 학교가다’ 전주북초등학교에서 진행. ‘Good job! 꿈을 잡(job)으로~!’ 여름방학 캠프 진행.…… 인후문화의집 청년기획 프로젝트 ‘흥.청.망.청’ 개최.

9월 진북문화의집 1일 캐리커처 팀 평생학습한마당 참가. 19일 ‘문학 속 음식이야기’ 진행. 동일 생활연극 동아리 육성 ‘생활문화 다반사’ 시작. 23일 전주역 앞 첫 마중길 행사 어울림봉사대 참가. 29일 운영협의회 개최.…… 우아문화의집 ‘꿈단지 어린이기획단 놀이문화 프로젝트’ 운영.…… 인후문화의집 바늘로 그리는 세상 ‘쪽매숨씨’ 진행. 묵공 동호회 평생학습한마당 참가.…… 효자문화의집 캘리그래피 동호회 평생학습한마당과 전주 독서대전 참가. 실버문화 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대회 참가 주옥하 모니 한국문화연합회장상 수상.…… 삼천문화의집 28일 운영협의회 개최.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5개 문화의집 연합 축제 ‘뜻밖의 휴가’ 오픈하우스 진행.…… 진북문화의집 14일 제24회 ‘지붕 없는 공연장’ 종료. 20일 동네 잔치 ‘음식디미한마당’ 진행. 28일 어울림봉사대 제11회 전국환경예능경연대회 참가 및 최우수상 수상.…… 삼천문화의집 ‘삼천마을축제’ 거마공원에서 개최.…… 우아문화의집 21일 첫마중길 위터미러 앞 ‘첫마중길 문화제’ 개최.…… 인후문화의집 찾아가는 문화공연 ‘들썹들썹 예술제’ 진행. ‘인후1동 동민애향’ 공동 주관.…… 효자문화의집 찾아가는 음악회 ‘마음나누기’ 정기 연주회 개최.

11월 인후문화의집 ‘꿈다락 문화학교 연구모임’ 진행. ‘리본으로 만드는 코사지’ 특강.…… 진북문화의집 17일 전라중학교 학생과 함께 김장체험 행사 진행. 20일 전주문화재단 협업 ‘함께해요, 빨간코’ 효드림요양병원에서 진행.…… 우아문화의집 25일 ‘우아한 라면연극제’ 아하아트홀에서 개최.

12월 삼천문화의집 19일 강사 간담회 개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전주 초록도시 공모전 장려상 수상. 28일 운영협의회 개최.…… 우아문화의집 22일 첫마중길상생협의회와 함께 첫마중길 일대에서 ‘첫마중길 자체발광 빛축제’ 운영. 31일 ‘Good job 꿈을 잡(job)으로!’ 결과발표회 공연 아하아트홀 개최.…… 진북문화의집 27일 지역문화전문인력 연속 사업 선정. 28일 전시 전용공간 첫 작품 전시회 개최. 29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제3회 바이올린 정기연주회’ 개최. 전주문화재단 협업 ‘함께해요, 빨간코’수공예 동아리와 함께 진행.



2018년

1월 전통예술원 모악과 전주문화의집협회 공동기획 프로그램 ‘전주 명인과 함께하는 지붕 없는 문화장터’를 1월과 2월 전주 5개 문화의집에서 진행.…… 인후문화의집 방학특강 ‘스스로 독서교실’ 진행. ‘재활용 필통만들기’, ‘풍선동화’, ‘독서 골든벨’ 진행.…… 효자문화의집 예술 인문학‘오페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진행.

2월 효자문화의집 문화동호회 화가 데이 두 번째 전시회 아무 갤러리에서 오픈.

3월 진북문화의집 ‘전주음식 아카이브 구축 관련 자료조사 및 수집’ 사업에 자체 발간 음식 관련 책자 4권 제공. 20일 3층 천정 누수 시설보수. 30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핸드메이드 체험 ‘카빙, 우드스푼’ 진행. 국립전주 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 참여.…… 효자문화의집 지역 아동 대상 ‘어얼 수! 전래놀이’ 진행.…… 삼천문화의집 30일 운영협의회 개최.

4월 진북문화의집 2일 ‘어울림봉사대’ 활동 시작. 11일 강사 간담회 실시. 14일 청소년 대상 ‘얹전한 고양이와 동네 부뚜막’ 시작.…… 인후문화의집 ‘인형뜨기’ 진행.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와 업무협약. ‘빨간 우체통아 놀자’ 진행. 희망목수와 연계 ‘1+3평, 막무가내 가드닝 in 마을’ 교육 진행. 회화와 사진 활용 문화예술교육 ‘일상의 재구성’ 진행.…… 효자문화의집 ‘음악도서관-효자 문화데이’ 진행.……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로 한옥마을예술공동체 선정.

5월 우아문화의집 이진복 관장 선임.…… 인후문화의집 정성 가득 카네이션 ‘감사의 편지쓰기’ 진행. ‘클래식 기타와 함께하는 지구촌 음악여행’ 진행. ‘우리동네 생활문화의 봄과 여름’ 마중길, 아중호수에서 진행.

6월 진북문화의집 1일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배치 및 활동 시작. 7일 시민서점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주관 전북지역 문화인력 재교육 사업 진행. 20일 ‘우리끼리 작가수업’ 시작. 29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잔치 ‘음식디미한마당’ 진행. 30일 상반기 지붕 없는 공연장 ‘청년, 생활문화를 만나다’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 삼천문화의집 27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동장’ 배치. ‘나는 Cook King’, ‘즐거운 물입, 행복한 상상’ 진행. 전주문화의집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효자문화의집 ‘시와 낭송이 공존하는 공간’, ‘시 읽는 시요일-시시콜콜’, ‘시심전심 나를 울린 시’ 및 ‘오픈콘서트 지역을 열다’ 진행.

7월 진북문화의집 4일 운영협의회 개최.…… 삼천문화의집 27일 ‘삶의 개나리장터’ 개최.…… 우아문화의집 14일 ‘주말N첫마중’ 행사 협력.…… 인후문화의집 어르신 낭독산책 운영. ‘엄마 나랑 책놀이 해요’ 진행.…… 효자문화의집 저자와의 만남‘장은영-책 꺾는 소년’ 진행.

8월 삼천문화의집 7일 ‘화목한 일상&공예’ 개최.…… 인후문화의집 ‘북노리 쿡노리’, ‘영화 읽기’ 진행. 목재문화진흥회와 함께 ‘인후문화의집 성인 목공 체험교실’ 운영. ‘희곡 씨부리기’ 낭독회 진행. ‘인후살이 몇 헝가요?’, ‘인후 2018 우리 동네 왜 왔니?’ 진행.…… 진북문화의집 20일 ‘나누고 함께하니 꽃이 피다’ 시작. 29일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상호 발전 및 공동사업 발굴 업무협약 체결. 31일 ‘주거니 받거니 장터’ 모래내시장에서 시작.…… 효자문화의집 ‘음악 속의 전람회’ 진행

9월 7일 5개 문화의집 평생학습한마당 참가. '성인기의 생활문화'콘셉트로 부스 운영, 각종 공예체험과 각 문화의집 활동 사진 전시. 진북문화의집 10일 '우리 집에 왜 왔니, 생활문화 찾으러 왔단다' 전주대 학생회관 앞 진행. 11일 '생활문화다 반사Ⅱ' 첫 강좌 시작. 17일 '생활문화가 꽃이 피다' 모래내시장에서 진행. 20일 '지붕 없는 공연장' 전북대 광장 진행. 27일 운영협의회 개최. 삼천문화의집 19일 운영협의회 개최. 우아문화의집 지역문화축제 '첫마중길 문화제' 개최. 인후문화의집 체험프로그램(나만의 향수 만들기, 케이프 스카프 만들기, 프랑스자수 배우기) 진행.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아중호수에서 개최. 경기도 광명 개최 전국생활문화축제 참여.

10월 전주 5개 문화의집 연합축제 뜻밖의 휴가 Open house 진행..... 인후문화의집 들썩들썩예술제 개최. '빠네 까르보나라 떡볶이', '를리외르 아저씨' 독후 체험 진행.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축제 개최. 1인 출판사 초청특강(모악출판사 대표 김완준) 진행.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붕 없는 공연장' 진행. 진북문화의집 25일 『우리끼리 작가수업』 책자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27일 마을 잔치 '진북생활문화제' 진행. 29일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마술가게 풍선장수' 진행. 31일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전시회 '동문길60'에서 '미소 짓는 순간들' 주제 개최. 삼천문화의집 27일 거마공원에서 '2018 삼천 마을축제' 개최.

11월 인후문화의집 얹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가꾸는 시 쓰기 교육 진행. 진북문화의집 13일 '모래내 김장축제' 개최. 26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자료집 『우리들의 음식이야기』 발간 및 배포. 효자문화의집 지역의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우리 가락 공연 전주 슬로시티 오순도순 진행.

12월 삼천문화의집 7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서학아트스페이스와 인후동 거리에서 동호회 작품전시회 개최. 2019 새해맞이 전통한복 활용 방향제 만들기 진행. 효자문화의집 어울림 성과 공유회 개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우수기관 선정. 진북문화의집 28일 운영협의회 개최. '우리끼리 작가수업' 한국문화의집협회 우수사례 선정.

2019년

1월 전주 5개 문화의집 권역별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꿀돼지 장터’ 개최.……
인후문화의집 인후공원 해맞이 행사 문화공연 참가.…… 효자문화의집 유리병 속의 화원
테라리움 만들기 겨울 특강 진행.…… 진북문화의집 21일에서 27일까지 개별 강사면담
실시.

2월 전주 5개 문화의집 컨소시엄 사업 ‘수작’ 각자 진행 결정.…… 삼천문화의집 ‘도전! 만
화가’ 기획프로그램 진행.…… 인후문화의집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정월대보름 재현 행사
참여. 봄맞이 테이블매트 만들기와 나는 Cook King 프로그램 진행.…… 효자문화의집
넬솔아트 액자 꾸미기 특강 진행.…… 진북문화의집 29일 1/4분기 운영협의회 개최.

3월 인후문화의집 ‘다문화체험의 날’ 진행. 매직 소잉 참여 주민 모집.…… 진북문화의집
운영협의회 개최.

4월 진북문화의집 10일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 및 비치.…… 인후문화의집 프랑스
자수&스트링파우치 교육 진행. 지역 문화인력 배치.…… 효자문화의집 ‘뮤지컬로 놀자!’,
드림 on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진행. 전래놀이 보급 프로그램 진행.

5월 삼천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삼천사람 공동 주관 4일 거마공원에서 ‘삼천초록별축
제’ 개최.…… 진북문화의집 17일 ‘진북에서 만나요, 살짜궁 데이트!’ 시작. 30일 동네 잔
치 ‘진북생활문화제’ 개최.…… 삼천문화의집 ‘삼천사용설명서 #1. 삼천공방’ 운영.……
인후문화의집 ‘신나는 예술여행, 달콤한 나의 집’ 연극 공연 참여. ‘무형문화재와 함께하
는 전통문화체험’ 운영. ‘미디어아지트 In who?’ 진행. 문화 아카이브 ‘인후에서 추억을
나누다’ 진행.…… 효자문화의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꼬지기획단’ 운영.

6월 삼천문화의집 1일 전주문화의집 공동 기획 2019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축제 거마공
원에서 개최.…… 진북문화의집 3일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배치. 5일 ‘주거니 받거니 장터
2’ 모래내시장상인회와 간담회 개최로 시작. 11일 3가지 인문 프로그램(인문 고전 천천히
읽기, 인문 키워드로 읽는 영화와 문학, 지중해로 떠나는 철학기행) 진행. 26일 ‘북적북적
진북발표회’ 모래내시장에서 개최. 문화아카이브 ‘따로 또 같이 -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
시작.…… 인후문화의집 천연발효식초&밀크티 만들기, 가죽클러치 만들기, 책가방 예코
백 꾸미기 진행. ‘안골콘서트’ 참여. ‘뚝딱! 뚝딱! 인후목공제작소’ 운영.…… 효자문화의집
‘시 읽는 시요일-시와 함께 하는 발칙한 상상력’, ‘우리동네 톤’ 진행. 전주문화의집 공동
기획 2019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축제 이바디공원에서 개최.

7월 진북문화의집 2일 '독특하고 수려한 공방(독수공방)' 시작. 3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료. 5일 운영협의회 진행. 삼천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우리들의 몸짓 이야기'를 운영. '공예노리 반짝, 홀라놀리 뽀짝' 프로젝트 진행. 인후문화의집 '시인의 서재' 진행. 문화의집 포토존 제작. 수공예 체험 진행. '연극&뮤지컬 하자' 진행. 효자문화의집 '비보이 광장에서 놀자!' 진행. '토크콘서트 음악 좀 알고 가자!' 진행. 동네 골목길 DP! '세 번만 만나 줘요!' 진행.

8월 진북문화의집 3일 전주문화의집 공동 기획 2019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축제 덕진공원에서 개최. 30일 평생학습한마당 참가. 삼천문화의집 24일 '삶의 야夜한 마켓' 개최. 인후문화의집 휴지심 활용 펠트 필통, 천연비누와 버무리 제작 체험. 뽕기놀이, 의상체험, 뽕에로 인형 색칠 등 진행. 작은 음악회 '인후 낭만 주의보' 개최. '오감만족선물' 진행. '평생학습한마당' 참여. 우아문화의집 릴레이프로젝트 '마중길 놀이터' 진행. 31일 전주문화의집 공동 기획 2019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축제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개최. 효자문화의집 '다채로운 정원이 이야기' 진행.

9월 진북문화의집 6일 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진행. 24일 '문화가 있는 날 = 손 없는 날' 시작. 27일 운영협의회 개최.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축제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개최. 효자문화의집 한가위 효자마을축제 진행.

10월 진북문화의집 8일 강사 간담회 진행. 11일 기획 프로그램 일환으로 만든 반찬 200세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 18일 모래내시장 시민축제 개최. 25일 아카이브 탐사대 결과발표회 개최. 28일 마을잔치 '어깨춤이 으쓱으쓱 마을잔치' 개최. 31일 '전주수작' 결과 공유회 진행. 삼천문화의집 거마공원에서 '2019 삼천마을축제' 개최. 인후문화의집 전주문화의집 공동 기획 2019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축제 인후공원내 시사재에서 개최. '찾아가는 문화나눔' 진행. 문화의집 성과공유회 진행.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전국문화의집 축제 '슬기로운 불편생활' 참여. 효자문화의집 '수다로 만드는, 하고 싶은 문화' 진행.

11월 진북문화의집 9일 소속 연극동아리 나로누림이 '2019 전국아마추어연극제 in 광주' 출전 및 주연 배우 우수연기상 수상. 삼천문화의집 '삼천동 만남양조장, 우리네 만남을 빚다' 행사 종료. 인후문화의집 '고전단편읽기' 진행.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 관련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성과공유 진행.

12월 전주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인후문화의집에서 개최. 인후, 진북, 효자문화의집은 민간위탁 사무가 1년 더 연장. 삼천, 우아문화의집은 전주시 직접 운영. 전주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와 운영시설의 발전 방향 모색 TF 구성 및 내년 1년 한시적 운영. 진북문화의집 24일 활동성과 자료집 『2019 짓다』 발간 및 배포. 27일 운영협의회 개최. 인후문화의집 들썹들썹 예술제 진행. 효자문화의집 어울림 성과 공유회 진행.

2020년.....

1월 삼천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 전주시 주무부서 직접 운영. 인후문화의집 ‘떡국 먹go 나이 먹go’ 진행. ‘팻트랙자’ 놀이활동 진행. 효자문화의집) 2020년 1월 생활문화확대 및 생활문화확산을 위한 문화동

2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16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대 시민 운영 잠정 중단(중단 기간 2월 16일에서 5월 20일까지).

3월 진북문화의집 16일 건물 리모델링과 석면 건축물 해체 관계로 사무실 효자문화의집으로 임시 이전. 27일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전주시 승인.

4월 진북문화의집 1일 지역문화인력 1명 배치. 10일 운영협의회 이메일 서면보고로 대체. 19일 건물 리모델링 완료 및 사무실 복귀. 20일 진북문화의집 개관 20주년. 기념식과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효자문화의집 지역문화공동체 효자동 사람 형성.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사업 진행.

5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20일 운영 재개.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단계적 운영 지침 마련. 진북문화의집 15일 강사간담회 진행. 20일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상설프로그램 중 2개 활동 정지, 동아리 1개 활동 중단. 인후문화의집 ‘인후마중물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6월 진북문화의집 1일 문화의집 운영이 본격적 재개. 7일 소속 동아리 나로누리 교육 시작. 24일 ‘즐거로운 불편생활’ 환경 주제 공예체험 진행. 26일 운영협의회 진행.

인후문화의집 ‘바람 솔솔 부채’ 만들기 진행. ‘자수러너 만들기’ 진행. ‘인후 메이커스 프로젝트’ 사업 전개. 운영협의회 개최.…… 효자문화의집 전래놀이 보급 프로그램 진행. ‘마음만 갖고 소통이 되니! 공간에 공감을 더하다’, ‘이웃 소식 들으셨나요?’, ‘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 진행. ‘토크콘서트 음악 좀 알고 가자!’ 진행.

7월 전주문화의집 10일 코로나19 대비 각 문화의집별 활동 방향과 공동사업 의견 교환 워크숍 진행. 14일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개최. 주요 내용 TF 활동 결과 보고와 논의 및 운영위원회 결의안 채택.…… 진북문화의집 13일 ‘생활연극 마실’ 7개 단체 참여 및 발대식 개최. 29일 ‘2020 진북에서 만나요, 살짜궁 데이트’ 시작.…… 인후문화의집 ‘고무신 신고 폴짝!’ 진행.

8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18일 코로나19 재 확산 및 방역 단계 강화로 시설 휴관조치 시행.(휴관 기간 8월 18일에서 10월 18일까지).…… 진북문화의집 6일 ‘다함께 오오렐레’ 오리엔테이션 진행.…… 인후문화의집 희망 일자리 인력배치. ‘원리를 배우는 놀이과학’ 진행.

9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전주문화의집 20주년’(가칭) 기념 책자 발간 결의. 총 6권 기획. 전주 문화의집 역사와 활동 및 시민 인터뷰 등으로 구성.…… 전주시의회 22일 제374회 본회의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인후문화의집 ‘마음만은 벌써 한가위 송편 만들기’ KIT 배포.

10월 진북문화의집 12일 운영협의회 진행. 18일 문화의집 운영 재개. 20일 ‘무지개 무용단’ 활동 시작. 30일 ‘#생문동1열-어린왕자의 위로’ VR영상 제작.…… 인후문화의집 11일 재개관 및 19일부터 프로그램 이용 시작. ‘메이커스 프로젝트’ 미디어 교육 실시. 인권실태조사 등 내부 점검 실시. 비대면 활동 ‘손끝에서 피어나는 보석 십자수’, ‘코튼돌 만들기’ 진행. ‘With 인후, 안녕! 100인의 손수건’ 진행. ‘인후 미중물 프로젝트’ 일한 유튜브 영상 전시회 진행.…… 효자문화의집 ‘내가 만드는 나의 노래 희희낙락’ 진행.

11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30일 코로나19 재 확산 및 방역 단계 강화로 시설 휴관 조치 시행.(휴관 기간 11월 30일 ~ 진정 시까지)…… 진북문화의집 6일 평생학습한마당 온택트 축제에 소속 동아리 나로누림 참가 및 발표. 10일 전주생활연극페스티벌 아하아트홀 소극장에서 비대면 개최. 18일 살짜궁 데이트 참가자 반찬 100여 세트 제작 및 한부모가정과 홀로어르신들에게 배송.…… 인후문화의집 ‘인후 메이커스 프로젝트’ 일환 거리 전시회 진행.……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 관련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성과공유회 진행.

12월 진북문화의집 24일 진북문화의집 개관 20주년 기념 사진전 온라인 개최. 20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배포. 한천수 관장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 인후문화의집 ‘패브릭 가랜더 만들기’ KIT 제작 및 배포.…… 효자문화의집 어울림 성과 공유 주민토론 형식 진행.……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으로 (사)꼭두 선정.…… 2021년부터 5개 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로 전환 운영.





3. 전주 문화의집 공간소개

1) 전주문화의집 위치





2) 진북문화의집

2층 주민 자율 이용 공간



시민서점

평상 시 독서모임,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기획사업 운영 시에는 강좌 및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주방이 있어 음식문화와
연계한 사업도 진행합니다.



갤러리 소소

매주 전시회 개최 → 공간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생활문화인, 작가 및 회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휴게 센터

자율 이용 → 주민 휴식 공간 및
바둑동아리 '흑과백' 이용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열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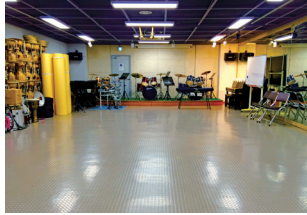
주민 모임 및 각종 회의 공간으로 활용(사무실에
신청)되며, 컴퓨터를 배치하여 간단한 문서작성
및 인터넷 사용이(자율 이용) 가능합니다.



이공일

소규모 회의 및 자료 보관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3 층



전방위 놀이터

방음시설 설치로 음향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합니다.



삼공일

회원 전용 공간으로 미술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삼공이

회원 전용 공간으로 인문·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삼공삼

동아리 및 회원 전용 공간으로 각종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삼공사, 삼공오

비품 창고, 회원 개인 및 소규모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3) 삼천문화의집



삼천문화의집 전경

삼천문화의집 전경



야외마당

- 야외에 마련된 휴식공간
- 활용 : 공예체험 및 전시



꿈꾸는 갤러리

-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지역주민의 수공예품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가들의 개인전, 지역주민이 손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공간
- 활용 : 주민작가전, 지역 공방 개인전, 단체전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활용



상상카페

- 지역주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들러 차 마시며 편하게 쉬게 하고자 함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들, 강좌, 더 나아가서는 무용, 춤, 음악공연까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공간
- 활용 : 열린 교실, 작은 음악회, 작은 영화관, 아트마켓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



두근두근

-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서예, 영어강좌와 같은 강의와 수채화, POP 등 손으로 만드는 수 공예품을 만드는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
- 활용 : 영어교실, 서예교실, 공예교실, 캘리그래 피 교실 등으로 활용



쿵쾅쿵쾅

- 밴드, 오카리나, 통기타 등 소리를 위한 공간으로 쿵쾅쿵쾅 두드리고, 신나게 노래하는 공간.
- 밴드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 등 악기연습과 관련 된 활동으로 활용



약자지껄

- 신명나는 풍물놀이, 몸으로 표현하는 춤, 건강을 위한 요가까지 몸을 움직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 활용 : 풍물교실, 요가교실, 한국춤 등 역동적인 활동들로 활용



딩굴딩굴

-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도시락 먹으며 수다도 떠는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휴식 공간
- 활용 : 평상 영화관, 작은 책방, 공부방, 휴게공간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



도란도란(회의실)

- 느긋한 마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
- 활용 : 프레젠테이션, 회의, 간담회 등 모임활동 으로 활용

4) 효자문화의집



북카페

면적 115.20㎡

로비공간으로 카페, 도서 기능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공간



티움방

면적 4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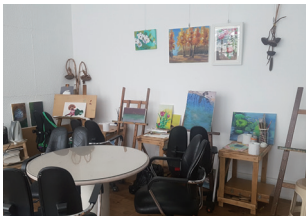
요가 등 건강 관련 동화들이 사용하는 공간



채움방

면적 48.2㎡

강의, 세미나, 회의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



쉼

면적 2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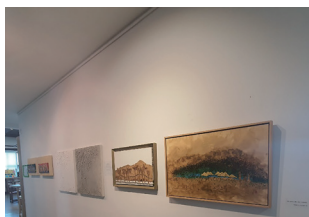
미술 동호회 전용 공간



이음방

면적 34.56m²

악기 동호회들이 사용하는 방음 공간



전시홀

면적 50.88m²

미술 전시 공간

5) 우아문화의집



안내데스크

문화의 집 공간이용 안내 및 도서 대출/반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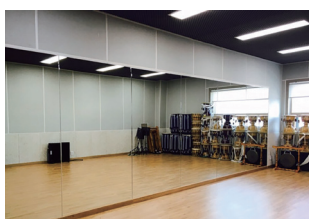
도서 및 휴게라운지

대기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서 도서 및 신문등을 볼 수 있고 간단한 담소를 나눔으로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동호회 활동공간(꿈지락2,3)

문화참여의 장으로서 실내악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실(꿈틀꿈틀)

문화체험의 장으로서 동아리 실로 활용되는 등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동아리 사물함 배치로 프로그램 활동 하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



층층갤러리

2층에 위치한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로 올라오는 계단을 활용한 층층 갤러리

6) 인후문화의집



안내데스크

- 마주침 공간
- 사업홍보와 문화활동 정보 제공
-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



문화창작실

- 공연, 체험, 상설프로그램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의, 워크숍 진행
- 움직임이 많은 활동중심 수업 진행



정보사랑방

- 학습, 교육, 동호회 활동
- 소규모 강연 및 회의



작은도서관 쉼터

- 약 10,000여권의 도서를 보유
-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공동체 공간
- 전시, 나눔 장터, 체험, 교류, 독서동아리진행



열린공간

- 공연, 음악회, 소규모발표회 진행
- 지역 청소년들 위한 연습공간
- 영화감상, 소규모 세미나 개최
- 방음이 필요한 활동에 활용



전국 대학이전 20년



지역과 문화 그리고 문화시설의 역할

대담 참가자

고미숙 : 인후생활문화센터 센터장

박시영 :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센터장

백정신 : 삼천생활문화센터 센터장

선홍진 : 효자생활문화센터 센터장

성기석 : 파사주 대표

심재균 : 우아생활문화센터 센터장

한천수 : 진북생활문화센터 센터장

성기석 : 작년 TFT 운영 결과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금산센터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전주 5개 센터 활동 계획, 그리고 마지막 자유토론으로 본 주제인 <지역과 문화 그리고 문화시설의 역할>에 대한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TFT는 총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방향은 전주 문화의집 기능 재설정과 거기에 따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 정책 동향이나 상황 그 다음 현황 분석, 그리고 2019년 「전주 문화의집 발전 전략 컨설팅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검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운영 개선을 크게 세 가지로, 발전 방향은 아니고, 현행 문화센터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기능 재설정을 해서 한 개의 기획기능을 하는 문화의집과 네 개의 프로그램 진행하는 문화의집 유지 이게 2019년의 전주시 문화의 집 발전 전략에서 제안을 했던 기능 재설정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의집은

팔호를 치고 생활문화센터로 완전하게 명칭 변경하고 기능까지 전환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차에 걸쳐서 TFT를 운영했고요,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지역문화 진흥원장님이나 강릉문화의집을 운영했었던 분, 3개 관장님,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실무자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TFT 보고서에는 저 내용들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작성했습니다.

문화의집 동향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제2차 지역문화 진흥 계획에서 보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생활문화 서비스 통합적 관리, 주민 공동체 문화 활동 지원,



생활문화 지원, 지역 사회 사업 추진 등 향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동향들을 보고 앞으로 문화의집과 연계 과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고, 문화의집 관련해서는 보고서라든지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다들 아시다시피 공간의 한계가 있고 법적인 제도적인 규정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시설 중심의 예산 지원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전문성 부분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 중복성 문제 그리고 생활문화 정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좀 이런 과제들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운영 방식은 전국적으로 문화의집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한 160개였다가 지금은 100개 미만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의 기획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활성화 되어 있고요. 다만 면적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좀 작은, 하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민간 문화 단체의 위탁 운영 중에서 모범 운영 사례도 있고, 운영 성과에서도 최상위에 속했습니다. 전주 문화의집 각각이 저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 현황들은 제작년 기준으로 제시했고, 기본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특성화 프로그램은 각 문화의집의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주 문화의집의 경우 3, 4년 전부터 같이 운영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공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주 문화의집 특수성들을 쭉 보면 지금까지 생활권 문화 창작 공간이자 창의적인 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주 문화의집은 상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이 동아리가 생활문화 예술 동아리가 되고 또 나아가서 사회적인 참여활동까지 이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간의 문화의집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민 자치 단체에서 한 것은 입문 과정인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중, 고급 과정 예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전문 예술가 및 단체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보면 일단 공간의 문제죠. 그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쓰고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이 지난 10년 간 특히 생활 문화 센터로 전환한 이후에 사업 영역이 엄청나게 좀 넓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서 주민자치와의 프로그램의 유사성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작년 TFT가 결성됐던 위탁 운영의 공공성 확보, 짧은 위탁 기간 이런 한계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직영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비교를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운영 개선 방안 중에 현행 유지, 그대로 가는 거죠. 명칭도 그대로 가고 기능도 현재 했었던 것으로 가고, 운영 방식에서는 직영과 위탁 이렇게 될 수 있고, 위탁으로 갔을 때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고, 직영으로 갈 경우에는 주민자치 영역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작년 전주 문화의집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가 중요 문제가 됐던 거고, 이미 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성, 여기에서 투명성, 책임성, 명확한 사업 영역이라든지 공개성, 운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속 강화시킬 건지는 여기에 계시는 센터장님들의 고민을 하셔야 할 문제 같아요.

두 번째 기능 재설정 부분은, 컨설팅 이전 보고서에서 했었던 건데, 한 개 문화의 집을 거점으로 놓고 나머지 네 개 문화의 집을 복합 문화 공간 역할로 하자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문화의집이 너무 기획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원래 문화의집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 즉 주민들들의 문화 예술 향유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 개의 문화의집을 거점으로, 이것은 좀 큰 생활문화센터의 개념인데, 여기에서 기획 기능을 하고 나머지 네 개의 문화의집은 문화의집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폭넓게 하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생활문화 관련 위탁을 하거나 전주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었죠. 지역 내 민간문화단체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고려가 안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전 문화재단의 기능이 지원 조직으로서 기능이 정책 매개 지원 조직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전주문화재단이 이것을 만나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 문화의집과 문화재단과의 역할과 함께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하지만 안정적인, 즉 직원들의 근무 환경의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었죠.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들어가니까, 향후 생활문화센터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계속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으로는 문화의집을 팔호로 치고, 역사로 남겨 놓고, 생활문화센터로 전환을 하는, 현재 그래서 생활 문화 센터로 댔는데, 그래서 명칭도 바뀌고 기능도 생활문화 활동 거점 역할을 하고 권역별로 생활문화의 공동체나 동아리나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매개하고 지원하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생활문화 활성화 기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들, 각 센터의 특성화를 계속 확대하는 기능이고, 운영 방식은 두 가지로 제안했는데 위탁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생활문화센터로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있는데 3층이랑 통합을 하든, 다른 곳으로 (독립해서) 나가거나, 진북처럼 그런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굳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의집이나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는데,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올해든 내년이든 한 번 협의를 해서 전체 생활문화센터가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기 힘들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센터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운영 방식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도 좀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의집이 확대된 성과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확대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생활문화 개념으로 센터가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의집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이든 예산이든 인력이든 똑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문화의집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비교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통 분모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을 제시한 거였는데, 이미 (결론이 나서) 끝난 거고요. 다만 문화의집으로 계속 가든 생활문화센터로 전환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던 건데, 첫째는 전주시가 생활문화 진흥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건지, 전주만의 생활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를 만들었는데, 단순히 다섯 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아니라 전주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거점 생활문화센터 구성은 여기에 있는 센터장님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기능과 상호 영역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작년에 다섯 개의 문화의집의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봤을 때 각 문화의집 별로 거의 재단 급의 사업 비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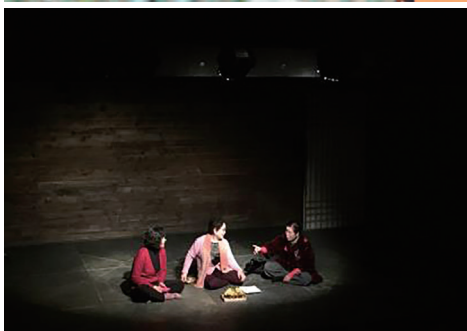
그리고 앞으로 법 제도적인, 작년에 이 TFT 보고서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만들어 졌지만 예전에 문화의집 조례하고 거의 이름만 바뀐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향후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 정책은 공공성 확보 부분들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좀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주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향후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자문 회의로 끝나는 그런 운영 위원회로 갈 건지, 아니면 나를 생활문화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기획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확장을 할 건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전주에는 지금 생활문화의 영역들을 한 번 좀 모아보면, 인문 커뮤니티라든지, 생활문화예술, 독서문화, 평생학습, 도시재생, 영상문화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에는 온두레 공동체부터 해서 많이 있고, 평생학습 같은 것도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독서문화는 독서대전을 하고 있고, 영상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들이 한 달이면 한 달을 해서, 전주 생활문화 주간을 만들어서 개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여기에 있는 생활문화센터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어서 박시영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영 : 전주 문화의집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오늘 짧게 발표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자료를 가져왔지만 5분에서 10분 사이로 발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산을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하면, 저희 특산물로는 인삼을 소개해 드리고요, 금산은 충청남도 가장 끝자리에 있어요. 예전에는 전북 권역에 속해 있다가 충청남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바로 밑에 있고요, 인구는 한 5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규모는 4,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개 읍에, 9개 면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인구가 51,000명이 이고, 읍의 인구는 한 22,000명. 그래서 (읍 인구가 군 전체의) 한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산의 시가지 모습인데요. 저 위쪽에 정중앙에 금산천이 흐르고 북쪽에 신시가지, 밑으로는 구시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남산이라는 곳에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 남산은 예로부터 3.1운동의 발생지이기도 하고요. 1967년도에 초창기 금산 문화원이 거기 위치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독 주택형 문화의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권은 아파트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의집이 2000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넓고 좀 지저분해졌어요. 2015년도에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을 해서 공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공간이 좀 많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실도 있고요, 사무실이 좀 좁아요.

이따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문화예술 법령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무슨 목적으로 설립됐는지가 없어요, 사실은. 다들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관 연혁은 2005년 개관을 했고요, 2005년도에 민간 위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 문화예술 운영위원회로 위탁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상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운영 조직도이고요. 저희는 위탁 사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16명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협의체로 해서 이사회, 운영위원회, 동아리 회장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 연합회 같은 경우는 다른 곳도 비슷하실 거예요. 회의가 좀 어려워서 분과별로 나눠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여기 이사회라는 것은 생활문화센터를 실무적으로 참여해서 기획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운영) 구조는, 여기 링겔만 효과라고 적어놨는데 줄다리기를 할 때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그 수에 비례해서 힘이 세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줄어든대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나 하나쯤이야 하고 이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다 아시잖아요! 공공 목초지가 자꾸 황폐화 되는 그림인데, 왜 그러냐면 주인 의식 없이 자기 목초지만 가꾸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초지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저희는 문화라는 게 범위도 넓고 다양하지만 그런 문화 의식을 함양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들이, 직원들은 그걸 목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가 무슨 차이나 다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도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이사회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들도 이사회 쪽에 포함된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던 운영위원회 동아리 회원들은 주민 영역이고, 이 뿌리와 나무 가지의 조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열매가 맺힐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야 지 먹이를 사냥을 할 텐데 처음에는 다 주뻗주뻗 한대요. 누가 뛰어든지 겁이 나가 지고, 어떤 펭귄 하나가 뛰어 내리면, 그때부터 다 따라서 뛰어내린다는 거죠.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지역문화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갖추어야 할 덕목 부분입니다.

인간 욕구의 단계를 6단계로 좀 더 세분화한 단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단계가 초월의 단계예요. 자기에겐 내재된 잠재성을 깨닫고 다른 이를 돕는 과정, 이게 자아 실현의 극한의 단계로 보고, 저희 생활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사회 같은 경우는 저 초월의 단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초월의 단계도 못 가고 밑으로 간다 그러면,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서 권력욕이라든지 금전욕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다 보면 (생활문화센터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란 무엇인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문화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문화가 예술을 하는 건지? 뭔지?, 문화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문화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물론 물리적으로 어떤 형체적으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체감을 못 하시는데, 이게 70년대 서울의 거리, 이때 교통법규가 없던 것도 아닌데 자동차들이 저렇게 무질서하게 다니고 있었는데, 현재는 (질서를 잘 지키고)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통 문화라는 거죠.

예전에 껌 종이 버리지 말자 그랬던 캠페인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리 질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고, 아무데서나 하던 흡연도 그렇고, 지금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걸 굳이 (교육이나 규제들) 하지 않아도 잘 지키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문화의집은 저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그러니까 (이 정의가) 얼마나 포괄적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하는 모든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집이라고 하면 (그 이름의 무게가) 엄청난 거죠.

문화는 또 교양, Culture라는 뜻에는 교양이라는 뜻도 숨어있다고 합니다. 교양인이라고 하는 게 문화인이라는 것과 같고 그러면 또 교양은 뭐냐? 교양은 지식, 정서, 도덕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품성이다, 결국 우리는 저 품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술문화는 다르다, 문화예술은 문화를 예술적으로 바꾸는 과정이고 예술문화는 예술범주에 들어가는 문화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범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나라’란 부분인데요, 다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게 높은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선경지명을 가지셨는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월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금산) 주민들이 예전에 포항 (지진으로) 이주민이 많이 생겼을 때, 집에 있는 옷가지를 저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나오셔서 바자회를 해서, 시장도 살려주고 여기에서 모아진 기금을 포항 이주민 돕기에 기탁도 했습니다. 저 활동에 저희는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술 활동도 했었죠. (초월의 경지에는) 저런 활동이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전주나 금산이나) 다 대동소이 할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 저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연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시너지를 만드는 과정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중에는) 창업도 하고, 저희 문화예술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기관 활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산 북쪽에 있는 다락원이라는 기관인데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보시면 대전에 있는 큰 예술 회관 같이 거대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7개 부처 사업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다락원’이라는 명칭으로 여기에 여러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저희는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락원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뒀었습니다. 다락원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처럼 핵무기와 인간 폭탄을 만들어야지만 생존전략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사람 마음이 다 이렇게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희는 사람들의 정이 품어지고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돋움을 하면 좋겠다. 다락원은 예산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규모도 크지만, (자세히)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 소외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차갑고, 누구 한 명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요,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시골길 나들이, 콘서트 주파수를 맞춰요 36.5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투어를 하면서 공연단 같이 공연도 하고, 저희는 그때 뭐 여러 가지 열악해서 (홍보물도) 직접 뿌리고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게 이 사진 한 장,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저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락 페스티벌도 했었고요, 무주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요. 팀 간의 협업하고 영화 동아리, 밴드 동아리가 만드는 행사들, 이런 게 다 기획자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 과정에서 팀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기획이 나온 거고요. 굉장히 성과도 좋았습니다.

아쉽네요, (발표할) 시간이 부족해서, 시장 문화 축제도 굉장히 큰 성과도 이루었고요, 지역의 테마를 살려서 공연도 하고, 스튜디오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녹음해서 성황리에 마쳤고, 식당 사업도 성황리에 끝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 규모는 큰데 직원이 적게 필요합니다. (주민이나 회원들이) 알아서 그 역할을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끝나면 수익도 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국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도 조율을 해서, 각 지역별로 문화 기획을 할 때 각 지역의 테마로 문화 기행도 다녀오고, 교류 활동도 하면서 많은 것도 배워오고 있습니다. 전주도 한 번 갔었, 무주랑도 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까지 (이야기를) 하면 (세미나 시간이) 늦어지니까, 여기도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소식지로는 저희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싣고 있고요.

이제 저희 문화예술을 추구를 하는 게 스마트폰 같은 문화의 집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2G폰을 쓸 때는 공장에서는 셋팅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맞추어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안드로이드라든지 앱을 깔아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화예술이라는 공간도 저렇게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자기가 기획을 해서 활용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생활문화센터가 전체적으로 (그러한 셋팅이) 다 있더라고요.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가 뭐가 다르냐? 문화원은 1950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황폐화 되었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문화라든지 역사이야기 이런 것도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전통문화 발굴 보존, 전승이 목적 사업이잖아요! 마을 유래를 발굴하고 동아리를 만들더라도 판소리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무형 문화재를 보존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문화의집이잖아요? 문화의집은 80년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할 줄 모른다, 여가 생활 좀 해 봐라! 한 가지씩 끼를 줌, 기타도 배워 보고, 요가도 배워 봐라, (문화의집 지향점이) 문화 민주화로 문화예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 지금이랑은 다르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겨난 게 생활문화센터 버전, 문화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는 누가 뭐 해라 저저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저걸 하겠다, 그런데 어디에서 할 것이냐, 공간을 줘라 해서 준 게, 생활문화센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집이 향후 나갈 방향은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자 중심으로 가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서를 다루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과 같이 위탁 운영 체제라든가, 여러 이런 체계로 봤을 때, 저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 있고요.

직접 주민이 기획하고, 그 공간을 꾸며가는,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한 사례 다음 저희 공간을 자발적으로 만드는 기획이었고, (지금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기획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게 혁신의 그래프예요. 지금이 되게 혁신적인 시대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시대는 예전에 만들었던 게 다 있대요. 컴퓨터랑 인터넷 빼고는 발명이 된 게 없다, 그런데 왜 더 혁신적으로 느껴지냐, 이게 아까 융복합적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융복합적인 사고를 존중을 해 주자!



문화예술은 정부에서 현장 중심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업은 뭐냐? 직업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정의를 하고 싶었어요. “문화기획디자인어”다 되게 길잖아요. 우리는 예술가일 수도 있고, 사업가, 행정가, 자본가, 기자일 수도 있다. 저 모든 게 합쳐진 직업이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겠다. 사람들은 우리를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술가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보시겠죠.

저는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장르다, 우리 격투기를 보면 복싱, 유도, 태권도 딱 장르가 없잖아요. 그런데 종합 격투기라고 하면 장르가 새로운 거거든요. 복싱에서 1등을 한다고 종합 격투기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업을 특화시켜서 보여주고, 그것을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희는 이런 열악한 구조나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전국에 있는 센터들이 연대를 해서, 이렇게 서울도 찾아가고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와도 면담을 하고, ‘전국생활문화센터협의회’ 2018년도에 조직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빨리 빨리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성기석 : 어마어마하네요. 금산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유 토론 때 이야기할 주제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섯 개의 문화의집이 올해부터 생활문화센터로 시작을 하는데,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진북생활문화센터 한천수 센터장님이 먼저 해 주세요.



한천수 : (세미나) 시간이 지체되어서 전주는 한 3분 이내로 발표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작년 TFT 결과 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주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북생활문화센터의 활동 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진북생활문화센터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생활 속 문화 활동 주체로 ‘함께 행복한 공동체 문화 형성’하는 것을 활동 방향으로 생각해서 비전을 ‘지역 속으로 시민 속으로, 나누고 함께 하는 생활문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게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참여기획 확대 및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는 이 설립 목적에 저희가 활동하는 권역만 붙였어요. 활동 권역은 전주 원도심하고 여기 부도심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 팔복동 지역까지로 좀 넓고 길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고민을 해 봤어요. 저희가 활동 방향을 네 가지를 잡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초 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진행하는데, 그동안의 어떤 강좌 중심보다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단계적인 기초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회원들끼리 각자 알아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동아리가 실질적으로 자기들 모임 말고 다른 것들까지,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동아리들 간 활동의 범위를 넓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획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겠지만, 아마도 설립 목적이 나 비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활동이 있는데, 수동적인 관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찾아가는 활동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양한 생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서에 3년 간 단계별 운영 계획이라고 써 뒀는데, 전주 시민이나 언론 쪽에서는 너네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활동할 건데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올해는 생활문화센터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 문화예술 활동과는 조금 다르게, 단절적인 변화를 겪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향으로 좀 더 분명하게 가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서 지역과 함께 하는 활동들로 확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진북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문화예술 교육 분야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중 일부는 회원과 강사와 논의를 통해 동아리로 전환을 시켜야 할 것 같고, 기획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고 특히 모니터링 팀을 운영을 해서 전체 기획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계획서에 6가지로 제시를 해 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거의 한 주도 안 빼 놓고 전시를 했어요, 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서 공간 지원 사업도 좀 확대 확장해서 기자재나 인력 지원 등으로 좀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경우는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에 더욱 힘을 실을 생각이고, 전주시혁신센터나 온두레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과 그리고 활동 권역 내 마을 단체들과 연합해서도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석 : 네. 바로 이어서 삼천생활문화센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정신 : 금산, 진북 센터장님 말씀으로 생활문화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를 들었고, 저 역시 삼천생활문화센터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안 됐지만, 센터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생활문화센터의 비전은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공동체가 있는 삶'입니다. 핵심 목표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문화 네트워크로 활동 권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거점 생활문화 공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센터의 공간을 확대해서 문화 향유 기회 대상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문화 인력을 파악하고 문화예술 동호회와 지역성을 결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호회와 전문인의 발표무대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삼천생활문화센터의 구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삼천생활문화센터 운영 목표는 '문화 소비자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조직, 창조력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조직, 지역주민이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 그리고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삼천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특성상 도농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 농촌동 주민주도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도심지 주민이 참여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이해와 협력으로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성과 관리 계획으로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우수한 성과 달성을 통한 위상 강화 그리고 비전, 목표, 세부사업의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삼천생활문화센터는 2002년 3월에 개관을 하여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날의 아카이브를 보면서 그동안 많은 지역의 이야기들,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힘을 쓰며 열심히 활동해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작년에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올해 삼천생활문화센터는 많은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천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왔고, 그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게, 재창조하면서 다시 활기찬 삼천생활문화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석 : 바로 이어서 효자생활문화센터 말씀해 주세요.

선홍진 : 운영 목표나 비전이 여기(사업계획서에) 써져 있는데, 효자생활문화센터는 별도로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거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지역 안에서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 거점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문화센터 (독립청사) 신축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공간이랄지 인적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문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활동범위를 늘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 생활문화센터에 와서 (문화나 예술의) 기술적인 부분들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기 무슨 사업이었냐면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페라를 만드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오페라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출도 그렇고, 배우들도 아마추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해석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걸 완성해서 하나의 오페라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문화센터를 저는 그냥 거점 공간으로 봤어요.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그런 공간이고요.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지역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자! 이게 작년에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이 사업 추진 계획은 사실 제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진행이 안 됐는데, 올해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단계가 빨라져서 소통과 공감의 단계는 벌써 끝난 상태고요, 적응 단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역민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그냥 간다면 그 활동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효자생활문화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도 아니고 회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단순히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효자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공동체하고 마을 추진단과 같이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공간에서 1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생활문화센터는 2차적으로 문화와 연결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지역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가 백수를 논하다)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사실은 문화예술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몇 가지 수를 낸다는 건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작년에 잠깐 진행을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 (올해는) 동호회, 지역민들하고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호회들의 문제점이나 현황, 바라는 점, 이런 걸 가지고 나머지 종사자들, 인력들이 그걸 가지고 (함께) 만들고 끝내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한 번 잘 진행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플리 마켓은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도적으로 청소년을 모아서 거리 조성을 하려고 다방면의 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사업 같은 경우는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나 (타 문화시설의 활동)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사각 계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 마쳤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했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동네에서 정원, 꽃밭, 정원도 그냥 정원이 아니고 문화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효자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진행)했는데, (주민들) 의견 나온 게 공원이 너무 음침하고, 어르신들만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동네 휴먼 문화와 정원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임은 반드시 책이 아니어도 좋고요, 음악도 좋고, 영화도 좋고, 공동체 모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 다음 우아생활문화센터 센터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균 : 우아생활문화센터 심재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한 25년 정도 문화예술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르는 주로 어린이 공연 쪽이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공연이나 축제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문화예술 교육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우아생활문화센터 위탁을 받게 되고 센터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타 생활문화센터와) 비슷하게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 신청 단계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저거하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차이가 발견되고, 거기에 맞게 재조정을 해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생각을 하는 것이, 문화자원봉사자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점진적인 주민 주도형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을 진행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가 문화공간의 거점이기 때문에,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결합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마을화까지 진화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이나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 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센터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 우아센터도 우리가 3년 위탁을 하게 되고, 다음 위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희가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단계라든지 역량 강화의 단계라든지 이런 걸 거쳤다면, 만약에 2024년도에 재위탁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과정을 거쳐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기석 : 이어서 인후생활문화센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숙 : 저희 인후 같은 경우는 인후1· 2· 3동, 우아2동, 노송동의 동부권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인근에 있는 평생학습관, 도시재생센터, 노인복지관, 시립도서관 2곳과 작은도서관 3곳 등 풍부한 문화기반 시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자원을 연결하며, 더불어 사는 마을살이를 통해 삶의 행복을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지역문화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사람’에 집중하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설프로그램 10개와 동호회 21개를 운영 중인데, 동호회를 조직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기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과 마을 리더십 교육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지속해온 마을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조사·발굴하고 기록했던 아카이빙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이 들어날 수 있는 마을축제도 개최해서 지역과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후생활문화센터의 특화사업인 ‘찾아가는 생활문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문화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유휴공간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작은 문화 공간, 움직이는 도서관, 이동 갤러리,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밀도 높은 관계를 맺고, 지역 내 문화시설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아2동 왜망실 마을축제, 인후2동 명주골 이야기 마을잔치, 인후3동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인후1동 감장 등을 진행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권역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제안을 실행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후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본질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추구했던 것이 사람의 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성장한 사람들을 기업과 단체와 연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갖춘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술을 통해서 문화 접촉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인데, 지금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으로 확대를 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예술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트워크거든요.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센터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활동을 연계하고 기반을 마련해서 예술과 문화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지역에 있는 문화 시설들과 MOU를 같이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로컬 기반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문화의집으로 태동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에 대한 문화를 조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민의 특색을 반영한 마을 축제도 개최하고 있구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이러한 사업을 다 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솔직히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차근차근 지역 안에서부터 자그마한 모의 체제로 구성을 하고 형성을 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주민 제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구성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생각한 것들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에 생활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아이디어 등을 함께 네트워크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좀 더 밀도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냥 참여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사업으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체성이 좀 더 강화되고, 긴밀한 지역 사회와 연대를 하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문화 인력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예전에는 문화 기획자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 놓고 같이 기획할 수 있는 장이 있었는데, 많이 사라진 거 같아요.

이걸 다시 회복해서 필요한 기획자들의 모임체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2021, 22, 23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 이어서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꺼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천수 : 세미나 주제에 맞게 전주의 생활문화와 문화시설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석 : 그러면 생활문화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나오면 이게 앞으로 생활문화센터에서 어떻게 만들 것 같 건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각 권역별로 센터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시영 센터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법적이든 아니면 협의체에 의한 것이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5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전주의 생활문화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로 예전 전광렬 박사가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생활문화에서 네 가지 개념을 정리한 것을 인용하면, 처음에는 행위자 중심으로 봤을 때 전문 예술이나 창작자 중심의 예술과 대비되는 관점, 이게 이제 보통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공식 예술이라고도 하고, 아마추어 예술이라는 말로 아마 이런 말들을 생활문화로 가져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르적인 관점인데 보통 문화가 예술을 매개로 했었잖아요. 물론 문화의 집에서 했던 예술은 조금은 전문적 예술을 하기보다는 기초 예술, 그래서 이런 관점이었는데 생활문화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확장한 거죠. 그 다음은 공간적, 시간적 관점으로 생활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문화의 생활, 일상화 이런 걸로 좀 되겠죠. 또 하나는 시설 중심에서 장소, 공동체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활동의 방식, 그 동안 (주민은) 대부분 수혜의 대상이었다면 주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 주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성과나 창작 중심이 아니라 과정, 문화 활동을 같이 기획하고 그것들을 실현을 해나가는, 참여한 시민들의 과정.

보통 이 네 가지를 생활문화의 네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아까 박 센터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문화의 민주화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 주권의 실현이고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자신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개발을 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민간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들죠.

한천수 :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기존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생활문화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놔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한테는 생활문화라는 말 말고, 기반문화라든지, 시민문화라든지, 지역문화 또는 기초문화라든지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활문화라고 하니깐 사람들이 이게 예술적으로 수준이 좀 부족한 아마추어 문화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더라구요. 그 이유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인가 그런 거 같은데, 전주에서 인제 아마추어 예술동호회가 협회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라는 말을 썼던 거 같아요.

이 동호회가 꼭 예총 분과하고 같은 구조로 협회를 조직하면서 예총처럼 장르적으로 구분했고, 그래서 아마추어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문화예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생활문화가 프로페셔널한 예술 장르의 하위 개념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라는 것은, 일단 생활이라는 광범위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예술하고 문화를 보면, 이것들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가 문화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문화는 곧 예술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문화는 어떤 집단이나 지역의 공통적인 의식이나 태도, 습관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고, 예술은 어떤 특별한 장르의 기능이나 기술이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오르는 고독한 활동을 말하는데, 물론 요즘 예술은 협업이니 집단화니 해서 함께하려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예술은 좀 독자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예술이라는 말로 뭉뚱거려 예술행위가 문화로 인식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화 사업으로 한 3년은 부도심 지역 음식문화를 조사했고, 또 3년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문화와 예술이 어느 정도 관계는 있지만 예술이 곧 문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구요, 또 모래내 시장하고 함께하는 사업들도 진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가 모이는 곳이라는 경험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분히 제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시장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곳, 특히 어머니가 장날이 되면 아침부터 옷을 곱게 차려 입고 저를 데리고 가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은 뭔가 기대되고 재미와 생기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여기저기 시끌벅적하면서도 다양하게 뭔가가 뒤섞여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추억을 시장 사업에 투영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추구하려고 했던 문화는 주로 그런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라는 것은 기반문화이자 토대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되었건 공동체 문화가 되었건 이 생활문화라는 땅에 뿌리를 깊게 뻗어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문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라고는 하지만 프로를 넘나드는 팀들도 많이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인지 이러한 동아리나 팀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동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 동아리, 공간 등의 조건을 만들고 시민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말입니다.

작년에 전주시민연극제라는 페스티벌을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분들은 정말로 연극이 좋아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그러는데 연습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진북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비단 연극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마도 이런 문화의 마당을 열거나 명석을 깔거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기석 : 생활문화라고 하든 시민문화라고 하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이 생활 문화센터에서 어떤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이전의 문화의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굳이 생활문화라는 것들을 말과 상관없이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를 향유 하는 방식이든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그 이전의 문화의 집에서 만들어 왔던 문화와 크게 다른지 아니면 다를 게 없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 하기도 합니다.

박시영 : 저는 생활문화가 뭔지 논의하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문화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의미로 갑자기 이것이 생활문화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혼란을 많이 초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문화의집이라고 만들었으면 그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법령으로 정해놔야 혼란이 없는데, 그냥 공간만 해 놓고, 이름만 문화의집이라고 붙여놓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활동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쌓이는 것도 없고, (법령으로 정해진) 정의도 없고, (문화의집 을) 이어온 게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아까 문화민주화, 문화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를 할 것이냐, 지금.

아까 우리도 법령의 정의, 비전 제시 다 했지만 되게 애매모호한 언어고 구체성을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문화의집이나 생활문화센터나) 대동소이 한 것 같고 그러 니까 오히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계속 방향을 찾을 수가 없고, 이제 좀 혼란스럽지 않나, 저희가 정의를 내릴 게 아니라 이 생활문화센터를 만든 주체가 생활문화센터 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해서 법령을 잡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심재균 : 여기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성기석 님이 얘기를 해 주실 적에, 전주시 같은 경우 생활문화에 대한 기본 정책 같은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것이 전국 단위가 됐건 지역 단위가 됐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적인 활동이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갈피를 못 잡고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의 의미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도,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이 협의체 중심으로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식으로 하는 활동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음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생활문화의 독창성이라든가 차별성이 유지되게끔 허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생활문화센터로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이 일률적으로 그 로고가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그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실제로 활동을 해서 보면, 주민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지침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각 생활문화의 단위에서의 독창성이 허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우리 단위 시설별로 그런 생활문화의 독창성 같은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전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5개의 생활문화센터가 각각의 독창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내용이나 기조나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을 결국은 이 협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결국 그것이 전주의 생활문화센터가 장기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니고, (타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홍진 : 법적인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저는 생활문화센터를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면 재래시장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거든요.

아까 잠깐 독창성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와서 많이 드는 생각은 과연 지역별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독창성은 저희 같은 센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민이 만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그 독창성이 사실은 (지역과 주민)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하는데, 독창성은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얘기도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독창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기석 : 지역문화진흥계획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문화 개념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통합적인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아마 그런 것들을 할 예정이라고 해 놓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영역들이나 문화의집이나 이런 관계들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문화의집이 뭔가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문화의집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 보니까 문화의집이 지금까지 두루뭉술하게 많은 것을 한 것 같아요.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뭔가 활동들을 좀 봤을 때, 문화의집, 도시재생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전주에 있는 문화의집 영역들을 이렇게 딱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실 문화의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경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한 몇 달 동안 각 센터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쭙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20년 동안 정리를 하시면서 문화의집이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 왔을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뭔가 전환이 되면 바뀌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 문화의집이 해 왔던 것을 책자 작업을 하시면서 한 번 되돌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진북, 효자, 인후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문화의집에서 어떤 문화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고미숙 :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각각 알아보게 됐는데, 알아보면서 느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획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 안에서 당시의 트렌드가 많이 묻어나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화의집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 가장 큰 아쉬움이 있었고, 기존에 해 왔던 작업들이 크게 많이 변하는 일이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생활문화센터와 이야기를 하자면 생활문화센터에서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게 뭘까 했는데, 거기에서 꾸려지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언가를 제안해서, 그것들이 공통의 주제로 해서 뭔가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 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업들은)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일이지만, 아예 구체적으로 지금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에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민자치와 문화의집이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사업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지역 안의 사업들을 주민 공동체와 만들면서

꾸려가고 있는데, 저희 생활문화센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지역의 한 주민센터에 있다 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각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내는 것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거점의 역할을 생활문화센터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금 기반을 하고 있는 생활문화의 공동체 만드는 이런 사업들은 각 동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씨앗을 키우듯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이런 공동체들이 자라는 것들을 잘 연계하고 키울 수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나아가야지만 앞으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곳이 지역 안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선홍진 : 조금 더 보태자면,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행위를 하는 사람만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바라보는 사람도 즐거움이 있어야 지역의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끝나고 봤을 때 어떻게 그걸 유지를 시키고, 관리를 시키고,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지역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천수 : 문화의집을 기반으로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과 주민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부분이고, 실제 여기에서부터 나아가야 하는 것은 세미나 주제와 연결시켜서, 생활문화와 문화시설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성기석 님께서 물어보신 그러니까 그동안 문화의집은 어떤 활동들을 했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5년을 전후해서 사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화의집 고유의 목적 사업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확장 개념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운영하였는데, 그러다고 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의집 민간위탁이라는 우리의 포지션, 우리가 전주 문화 영역에서 차지하고 위치 그리고 불안정한 활동과 영세한 입장 등이 아마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문화 시설에서 해야 하는 역할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이 저한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하는 사업 영역들이 결국은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문화의집이 발전하는 하나의 방향을 발견한 것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측면이, 주민주도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지만 진정으로 시민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심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로 올해와 내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성기석 : 저도 좀 정리를 했었는데, 2010년 이전 전주에 사실 문화시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의집이 초기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축제도 기획 했고, 1년에 서너번씩 수강생들 발표회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지금 말로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문화시설이 많아지면서 문화의집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기획 사업으로 치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고미숙 센터장님께서 생활문화센터가 거점 공간, 플랫폼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 다른 조직에서 온두레 공동체라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문화 조직들을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동체들의 활동과 생활문화센터가 하려고 하는 플랫폼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아직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시영 : 이제 전주 문화의집 20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얘기를 해 주셔서 잘 배웠고, 저도 금산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한 지가 13년이 됐더라고요.

다른 직장 13년차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참 파란만장 했던 것 같아요.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열악하고, 그 열악한 구조에서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외풍도 심하고, 흔들림도 많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공동체 사업도 하고 했었죠. 할 때는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냐면 워라벨(Work-life balance)이라고 하잖아요. 퇴근 이후의 삶과 직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챙기거나 자기 자신을 위했던 삶이 빠져있지 않나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공간도 아니고, 이게 단체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개인은 계속 그걸 녹여내면서 공공을 위해 희생하고 있고, 공공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있다는 생각이 지금 시점에 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고, 예전에는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계속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생활문화 정의조차도 혼란스럽잖아요! 체육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다른 곳, 안 된다고 하는 곳도 보면, 다 잘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시작부터) 체계를 잘 잡고 기초를 잘 잡고, 뭐를 할 건지 정확하게 해 놓아서 거기에서부터 기반을 잡고 펼치다 보니까, 확장이 잘 되고.



여기는 디딤발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디딜지 모르는데, 확장을 시켜요. 제가 아까 나무를 보여드렸잖아요! 뿌리가 약한데 자꾸 가지를 뺀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삼천, 우아 센터장님이 여기 오셨지만 삼천, 우아센터가 어제 오늘 생긴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애도 언제는 곧 떨어질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토론회를 하고 있고, 아마 10년 뒤에 토론을 해도 똑같은 토론을 할 테고,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3년 뒤에 만났는데,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강좌가 50개면 1등이고, 10개면 0점이고, 사업비를 1억을 받으면 1등이고, 500만 원을 받으면 꼴등이고,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문화적인 질적인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가면 성과가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거는 평가가 안 돼요. 이 맹점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봤자, 우리는 공유재산물관리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생활문화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하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용역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 사업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용역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센터 운영비로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10~15%는 그냥 마진으로 1,000~1,500만 원은 그 운영 단체가 운영을 해 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운영비인데, 그런 걸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위탁 생활문화센터들이 전혀 그런 거 없이, 지금 인건비만 그거로 채워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 나중에 10년, 20년 뒤 생활문화센터가 잘 될 것이나? 운영자가 행복한 센터? 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고요. 저는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따르면 안 된다! 이 센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위탁 구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고, 여러 곳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조가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정답은 아니예요.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여러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다른 곳은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여가부, 복지부 이런 곳에서는 미리 규칙을 딱 잡아 놓고 딱 줘요. 위탁 단체나 어느 곳에서 운영을 해도 할 수 있게끔.

생활문화센터도 문체부에서 운영 지침을 줘야 해요. 직원 관련된 것, 공무 교육 등 체계를 딱 주고, 그 체계대로 움직이게끔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단체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그런 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도 저희 조례를 보면 고용 승계라고 있거든요. 보통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용 승계가 있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규칙에서 담아놓으면 돼요. 급여 체계 구조부터 해서 모든 조약을 담아두고,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을 할지, 어떤 법인에서 운영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문체부에서 정해 준 규칙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정을 다 통일시킨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을 잡아주고, 창의적인 걸 그 구조 안에서 하게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 초창기에 할 때 밑에서부터 의견을 받아서 위에서 바꿔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절대 아니잖아요.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어려움이나 의견도 되게 많은데, 이거 하나도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성과는 냈지만 아직 끝까지는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떠안느냐면, 우리 모두가 떠안고 계시잖아요.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논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걸 찾아서 좀 관철시킬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20년이 지났고, 앞으로 4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완성을 시켜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성기석 :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2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로 부딪히면 많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시와 이야기 할 때, 문화의집 직원들 급여가 전주에 있는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최소 30에서 50% 이상 낮거든요. 실제로 한 10년 전에는 더 낮았죠. 솔직히 착취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시는 예산이 없다 그런데 다른 문화시설과의 형평성은 맞춰야 하는데, 지금 문화의집만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어떻게 보면 아까 박 센터장님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문화기획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참 지난한 작업이긴 한데, 전국생활문화센터협의회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앙 문체부나 지역문화진흥원과도 함께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 내에서도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방향은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체계 부분,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미숙 :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사업을 할 때 초창기에는 상당히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이나 지원이 약해지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의지가 얼마 큼인지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해왔던 역할들 중 일부는 사실 지금 전주재단에서도 하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들, 예술 동호회, 문화예술 교육 사업까지 가져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오랫동안 해 온, 지역에서 사람들과 같이했던 공동체 사업도 도시재생 하는 곳에서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의집을 조성할 때보다도 지금이 정책적인 기반은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는 운영비를 많이 받지도 못하는 곳이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한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노인복지센터는 노인, 이런 타겟층이 명확히 있는 곳들은, 복지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문화의집이나 생활문화센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고, 문화라는 건 이미 대중화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얼마큼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 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고민 거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활문화협의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진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각 지역에서 자기의 자존감이나,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크고, 이것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소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먼저 되살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홍진 : 저도 고미숙 센터장님과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절실히 느끼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지역에서 할 때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자에서 하는 가장 중점적인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생활문화센터가 한다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성기석 :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전주의 생활문화라는 브랜드를 다섯 개 생활문화 센터가 가지고 가는, 전략적으로 생활문화센터협회를 중심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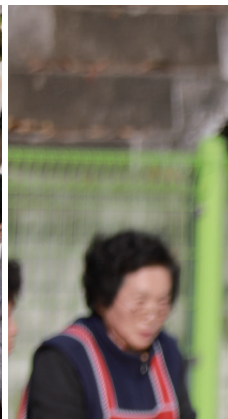
정책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 브랜드를 짚 가지고 와서, 이제 예전 문화의집이나 이런 게 애매모호 하지만, 생활문화 환경은 여기 생활문화센터에서 모든 걸 가지고 간다, 확장한다 이런 것으로, 올해나 내년에 만드는 작업,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생활문화센터에 관련된 예산들도 통합적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생활문화센터협회와 연대를 해서, 정책적으로 중앙단위에서부터 법적인 거든, 제도적인 거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완전히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애매하지만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써먹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생활문화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집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경계가 없이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계들을 그냥 안고, 생활문화 브랜드는 이미 만들어 졌고, 앞으로 없애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주 문화의집 20주년 기념 세미나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아중문화의집 20년

IV

부록 - 아중문화의집

현재 아중문화의집은 전주시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 실린 글 중 많은 오충렬 님의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주신 오충렬 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1. 개요

1) 개관

2002년 4월 11일 전주시 제 5호 아중문화의집으로 개관

2005년 5월 13일 전주시평생학습센터로 기능 전환

2)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충목로11 (인후동1가 886-6)

전 화 : 063-281-5269 / 팩 스 : 063-241-1087

홈페이지 : <https://e.jeonju.go.kr>

3) 활동권역 : 전주시 전역

4) 시설

총 규모 1,402.3㎡(424평), 연건평 794평(지하1층, 지상3층), 최대 수용인원 400명

5) 운영시간

평일 09:00~21:00까지, 토요일 09:00~18:00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6) 주요활동

기본 교양강좌, 정보화뉴미디어, 어린이 청소년 인성교육, 열린교양 강좌, 지역주민 여가 활용,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공간 구성

구분	인구
지하층	헬스장/주차장
지상층	사무실 / 휴게 라운지 / 전시실
지상2층	정보화교육실 / 문화도서관 / 문화공연장 / 어린이 놀이방 / 시청각교육실
지상3층	문화사랑방 / 음악실 / 다목적실
야외	만남의 광장, 야외마당

1) 헬스장

아중문화의집은 타 문화의집에 없는 최신식 헬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헬스장은 아중문화의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으로, 한 달 이용료는 15,000원, 정원은 300명이었다.

개관 초기 헬스장 이용을 위해서는 아중문화의집 주위로 원을 돌려 줄을 서야 할 만큼 인기가 좋았고, 대기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원이 다 찼다고 한다. 헬스장 주 이용층은 40~60대였다.

아중문화의집에선 장애인(1, 2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세대 당 1강좌에 한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었는데, 헬스장의 경우는 보통 10~20여 명 이용으로 다른 프로그램 1~2명 이용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2)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은 문화의집 건물 앞, 텅 빈 공간을 가리킨다. 5개 벤치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어 문화의집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문화의집 이용자들은 수업 중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수업 종료 후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3) 문화공연장

아중문화의집에는 126석 규모의 소공연장(51.54평, 170.4㎡)이 있다. 주로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종종 사회단체나 교육단체의 대관요청으로 대관업무도 진행하였다. 대관 시 기본 사용료 5만원에 각종 비품 사용 시에는 추가금이 붙기도 한다.

영화 상영과 대관 업무 외에는 소규모 공연, 각종 행사, 수강생 발표회, 동호회 공연 및 영화제 진행 등으로 활용된다.

4) 문화도서관

문화도서관은 18.39평(60.8㎡)규모에, 책상 5개와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갖춘 작은 도서관이다. 이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보통은 프로그램 대기 공간이나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유아나 아이들 관련 도서가 주로 비치되어 있다. 아중문화의집에서 진행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는 「올챙이 책마을」이 대표적인데,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독서하며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소장 도서는 주로 아동, 문화, 예술 분야 약 1,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5) 시청각 교육실

시청각 교육실은 약 10평 규모에 교육과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디지털 캠코더 4대와 영상 편집 가능 컴퓨터 5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아중문화의집에서는 영상교육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영상제작」, 「어린이 VJ 특공대」등을 운영하였다.

6) 어린이 놀이방

약 5평 규모로 조성, 아이들을 위한 놀이 기구와 각종 장난감으로 공간이 구성되었다. 주 이용층은 어린이로, 나이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 부모가 함께 있기도 한다.

보통은 부모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거나 부모를 기다리는 대기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7) 정보화교육실

정보화교육실에는 컴퓨터 20여 대가 구비되어 있었다.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과 한글이 설치되어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다.

이용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주요 이용층은 학생과 성인들이다.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이용층이 변하는데 5시 이전에는 주로 성인들이, 5시 이후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제작과 인터넷 이용, 그리고 기초 컴퓨터 활용 등이다.

8) 다목적실

3층에 위치한 다목적실은 문화프로그램실 중 가장 넓은 42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공간적 특징으로 바닥은 마루에, 음향과 영상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명칭 그대로 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주 용도는 노래 연습장, 회의실, 춤 또는 무용, 요가, 장구 등으로 활동적이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었다.

9) 문화사랑방

문화사랑방도 3층에 위치했으며, 약 18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주요 비품은 커다란 책상과 의자가 있어 주로 소규모 회의나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공예와 서예가 진행되었는데, 문화사랑방 한편에 수납장을 구비하여 이용자들의 개인 기자재 보관 등에 편의도 배려하였다.

여기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는 한지공예와 선물포장, 서예와 사군자 및 기타 공예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0) 음악실

음악실은 이름 그대로 음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약 13평 규모에, 비품으로는 10개 절탁(접고 펼 수 있는 탁자)과 의자가 있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플루트, 오카리나, 단소 등의 음악프로그램과 이 외에도 비즈 공예나 메아리 책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11) 전시실

전시실은 아중문화의집 설계 당시에는 없던 공간이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전시 활동은 주로 3층 다목적실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층에 전시실을 조성한 후에는 전시 분야가 매우 활성화되어 1년 내내 전시가 끊이질 않는다.

보통은 미술 관련 프로그램 수강생의 작품이 전시되지만, 문화의집 프로그램 홍보 시에는 홍보관으로도 이용하였다.

3. 프로그램

공간	문화프로그램
다목적실	요가, 몸짱 프로젝트, 재즈댄스, 키 성장 스트레칭, 장구 교실, 유아초등 재즈댄스, 레고닥타 베이비집, 뇌 호흡 기공, 아마데우스, 모듬살이 놀이교육
음악실	수채화·유화, 토피어리, 비즈공예, 어린이 동화구연, 메아리책, 형깁인형, 레고닥타, 인물드로잉, 오르다, 어린이 플루트, 칼라믹스, 오카리나
문화도서관	올챙이 책마을
문화공연장	노래교실, 가요 아카데미, 토요 가족영화, 테마영화, 아중영화관, 영상릴레이
시청각교육실	디지털 영상제작, 어린이 VJ 특공대, 수지침, 부모교육
정보화교육실	캠맹 탈출
문화사랑방	한지공예, 서예·사군자, 디지털 카메라, 하모니카, 플루트, 글쓰기, 선물포장, 마술

아중문화의집에서 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곳은 다목적실, 음악실, 문화공연장과 문화사랑방이었다.

누구나에게 오픈된 공간은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수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주로 입문 과정이나 공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공간은 문화도서관과 정보화교육실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 회원 전용 공간은 그 운영 목적에 맞게 폐쇄성을 띠 수밖에 없는데, 공간의 설비와 시설물품으로 활동 장르가 구별된다. 하지만 음악실의 경우는 음악과 미술·공예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음악 전용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다목적실이나 문화사랑방의 경우도 공간 명과 운영 프로그램 성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주민들의 프로그램 개설에 요구와 수요에 따라 시간 배정으로, 공간적 특수성을 조금 외면한 측면도 있었다.

1) 정기 · 단기 · 기획 프로그램

아중문화의집 정기 프로그램은 매월 일정의 수강료(1만원에서 9만원까지)를 받고, 강사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아중문화의집에서는 정기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건강, 정보영상, 취미교양, 음악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은 어린이와 성인 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대상에 따른 정기 프로그램의 변화는 2002년 개관 당시 어린이(초등학생 포함) 대상 프로그램 5, 성인 대상 프로그램 7, 전 연령층 대상 프로그램인 헬스 1 등 총 1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03년에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16, 성인 대상 프로그램 26 등 총 42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2004년에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34, 성인 대상 프로그램 32, 기타 가족 대상 프로그램 6 등 총 72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아파트가 밀집한 신흥 개발 지역인 아중리의 특성 상 젊은 부부와 자녀들의 거주가 많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가족 대상 프로그램 수도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의 유입에 따른 성인들의 이용 빈도도 높아져 정기 프로그램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내용에 따른 정기 프로그램의 변화로 2002년 개관 당시에는 홈페이지 제작 교실과 헬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프로그램이 미술, 음악, 무용 장르로만 구성되었다.

2003년에는 정보 · 영상 4, 건강 10, 취미교양 7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2004년에는 교육 · 독서 6, 놀이 3, 체험 2 등이 개설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도 매우 풍부해졌다.

단기 프로그램은 교육체험과 대중강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문화체험마당과 전주문화생태체험 등을 진행하였는데, 전통문화체험마당은 아중문화의집 앞마당에서 천연염색, 봉숭아물 물들이기, 떡 만들어 먹기, 민속놀이 등으로 가족이 참여하여 함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총 3회 진행하였다.

전주문화생태체험 전주천 생태체험, 기린봉 생태체험, 한옥마을 문화체험으로 3회 진행하였다. 이 체험 행사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직접 전주천에 발을 담고, 기린봉 산길을 오르고,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통문화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대중강좌 프로그램으로는 아중리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민을 위한 재테크’, ‘웰빙라이프’ 등을 진행하였다.

기획 프로그램 역시 가족을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가족놀이 춤’, ‘가족스트레칭’, ‘심폐소생술과 응급간호’,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이중 가족놀이 춤은 전통춤과 난타 배우기를 통해 가족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부모교육은 자녀가 아닌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 및 진행하였다.

2) 전시 프로그램

앞서 기술했듯이 전시 공간은 초기 설계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목적실을 전시실로 활용하였으나, 다목적실은 상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공간으로 1층 빈 공간을 전시실로 꾸며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는 곳에 전시실을 배치하였다.

전시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전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작품 전시와 홍보 목적의 전시로 운영하였는데, 작가(수강생 포함)의 입장에서는 성취도,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보며 즐기는 만족도가 그 하나이고,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홍보와 문화의집에 대한 이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중문화의집은 번듯한 전시관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해서 1년 내내 전시가 진행된다. 주된 전시 내용은 서예나 미술 등의 시각 예술품을 전시하기도 하지만 타 기관과 협업하여 전통 민속자료를 포함한 교육적인 전시도 진행한다.

전시는 문화의집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 목적의 전시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소개나 이해를 위한 경우가 많다.

기획 전시로는 주로 타 기관과 협업하는 전시를 말하는데, 전주역사박물관과 함께 ‘찾아가는 박물관, 도량형전’, ‘전주 바로알기’ 등을 진행하였고, 여성단체와 함께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야기’도 그 대표적인 전시회이다. 문화의집 홍보성 전시는 주로 프로그램 개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선물포장’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사전 홍보의 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홍보 목적의 전시는 주로 공예 관련 작품 전시가 많은데, 그 이유는 관람객들에게 효과가 매우 직접적이어서 프로그램 개설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전시의 예로는 ‘한지 공예’, ‘선물포장’, ‘토피어리’ 등이 있었다.

3) 영화 프로그램

아중문화의집은 타 문화의집에 없는 공연장이 있어 이를 활용한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였다. 영화 프로그램으로는 ‘아중영화관’, ‘테마영화’, ‘영상릴레이’, ‘토요가족극장’, ‘특별영화’ 등 5가지로 진행하였다. 관람료는 없었지만 영화 상영 등급에 따라 입장을 일부 제한하기도 하였다.

‘아중영화관’은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작들을 상영하는 것으로 분기말(3, 6, 9, 12월)에 개최하였고, ‘테마영화’는 특정 시즌에 맞춰 테마를 선정 및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영상릴레이’는 여름과 겨울 시즌에 모든 계층과 연령층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영화를 상영하였고, ‘토요가족극장’은 토요일 4시에 가족이 함께 즐기는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특별영화’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특정 의미가 있는 날에 그 내용과 맞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아중문화의집은 헬스 및 건강, 문화예술 교육,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호응이 많았지만, 특히 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였다. 그래서 어떤 시민은 아중문화의집을 ‘영화 보러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영화 프로그램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이유는 상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영화,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 작품성이 높은 영화 등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이었다.

4) 행사 프로그램

아중문화의집에서 개최한 대규모 행사로는 ‘2003년 정월대보름맞이 놀이마당 기린토월 - 마당극 배뱅이’와 ‘2004 여름밤의 문화마당 - 시의 숲, 음악으로 산책하다’가 있었다. 2003년 2월 15일 정월대보름 아중리 분수대 공원에서 개최한 ‘마당극 배뱅이’는 아중리 주민뿐 아니라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하였는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공연과 수강생 발표회로 구성하였다.

2004년 7월 30일에 개최한 ‘시의 숲, 음악으로 산책하다’ 역시 지역 주민과 전주시민 대상의 행사로 아중리 분수대 공연에서 진행하였는데, 약 1,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행사 후에는 프로그램 문의가 쇄도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아중문화의집 소규모 행사로는 ‘가족음악한마당’, ‘아중 나눔터’, ‘2004가족의 달 행사’,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 등을 진행하였다.

‘가족음악한마당’은 아중문화의집의 운영방향에 맞게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로 문화의집 앞마당에서 진행하였고, ‘아중 나눔터’ 역시 문화의집 앞마당에서 개최하였는데, 공예품 전시, 체험 및 판매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가족의 달 행사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세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관련 자료 전시, 엽서 판매, 테마영화 상영, 책자 출판기념회 개최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운영

1) 운영방식

아중문화의집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전주시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인후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회가 선정되었고, 관장은 관련 전문가 공모 및 심사로 선정하였다.

2) 운영조직

운영조직으로는 기획부서와 관리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직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운영실장, 팀장(운영팀장, 관리팀장) 및 직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홍보팀은 프로그램을 기획 및 홍보의 업무를 하고, 관리팀은 회계 및 일반사무 업무, 시설관리와 공간운영을 담당한다.

아중문화의집 공간이 타 문화의집 보다 넓어 직원 수도 3~4명 많이 근무하고 있다.

3) 운영방식

아중문화의집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동일 프로그램을 3개 이상 만들지는 않는 것과, 고급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홍보, 접수, 수강생 관리, 수강료 등 운영관련 사항은 사무실에서 일괄 담당하고, 강사는 수업만 진행하게 하여 강사가 문화의집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강사비와 운영비는 50:50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문화의집에서 주도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 범주에 들지 않았다.

전주문화의집 20년

발행처 | 전주문화의집협회

발행인 | 한천수

기 획 | 고미숙, 선흥진, 성기석, 한천수

발행일 | 2021. 02. 26.

디자인 | ㈜이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주문화의집협회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과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